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또한 무한 감사하며 보내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시편 139편 13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9월 11일 (토) 제 1841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텍사스 보면 미 보수주의 실체 볼 수 있다!

미 언론, 텍사스 650개 이상 새 법률 '9월 1일부터 시행' 에 따른 해설과 예측

미국 보수 진영과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주에서 최근 보수 진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들이 잇따라 통과, 시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자기방어를 위한 총기소지는 만 21세 이상이면 허가나 교육 없이도 소지할 수 있는 법안, 임신 6주 이후에는 성폭력이나 근친간간에 따른 임신이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 공립학교에서 인종비판이론이나 백인우월주의 등을 도덕적으로 비판하는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는 법안 등이다.

텍사스는 또 지난 2020년 대선에 부정투표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 부재자 투표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주지사가 행정명령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과 관련해 학교 등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금지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또 직장 등에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정치적 주장을 수용한 조치들이다. 트럼프즘(트럼프식 정치)에 기반한 공화당이 주지사, 상원, 하원 등 정치권력을 싹쓸이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텍사스가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텍사스에선 소수권력인 민주당과 시민사회세력은 해당 법안들과 관련해 연방법원에 가져본 신청, 위헌 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지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리더 봉사자, 교회의 삶과 성장에 필수

처치리더스컴, 에드스테처 목사가 전하는 리더봉사자 선택과 관심 노하우

우리 대부분은 '봉사자'들이 우리 교회의 삶과 성장에 얼마나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휘튼칼리지의 교수이자 학장으로, 휘튼 칼리지 빌리 그레이엄 센터의 전무이사를 겸하고 있는 에드 스테처(Ed Stetzer) 목사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역할을 할 봉사자를 선택하는 것과 또한 그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The Importance of Volunteer Leaders in the Church).

리더십은 매력적이거나 화려한 지위 얻는 것 아님 손과 무릎 꿇고 다른 사람 발 씻기는 봉사자 돼야

리더 봉사자들은 여러 사역의 단계를 거친 사람들이다.

봉사자들을 관리할 리더나 리더들을 감독할 지도자를 찾을 때 이상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끄는 사역의 모든 단계를 거친 사람, 즉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거나, 성경공부를 이끌었거나, 어린이 부서 예배에서 봉사했던 사람을 찾는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이 그러한 위치에서 봉사한 후에 나

는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감독할 수 있는지 봅시다" 라고 말한다.

더불어 나는 봉사자들이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리더십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봉사자들을 도전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다. 여러 단계의 사역을 거친 지원자를 찾아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면으로 계속)

'사실상 낙태금지' 법 시행... "헌법위배" 논쟁 격화

텍사스에서는 1일부터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심장박동법(fetal heartbeat bill)'이 시행됐다.

이 법안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 사실상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성폭행, 근친간간과 같은 성폭력 피해도 예외가 없다. 다만 임신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비상시에는 가능하다. 또 이 정책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시민들이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소송에서 이기면 1만 달러의 보상을 지급한다.

텍사스주의 이런 법안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로 헌법적으로 보장해 온 여성의 낙태권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바이든은 1일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유색인종이나 저소득층 여성의 의료 서비스 접근



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면서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당분간 텍사스에서 낙태 금지법 시행을 막을 방법은 없

다. 낙태 권리 옹호론자들이 연방대법원에 이 법 시행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1일 기각됐다.

대법원은 동 법안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긴급청원을 기각한 것이지, 합법성에 대한 결

정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관들은 서명이 없는 결정문에서 "이번 결정은 텍사스 주법의 합헌성에 관한 어떤 결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은 텍사스 주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보수성향이 강한 각 주에서 낙태 제한을 강화하는 입법을 떠나없이 마련했다.

보수진영에서는 중국적으로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 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의 번복을 노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낙태권에 대한 입장이 보수와 진보를 가를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다.

낙태권을 둘러싸고 불분기 시작한 논쟁은 내년말 중간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프가니스탄 철군의 혼란상을 초래해 궁지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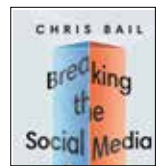
(3면으로 계속)



시론 최혜근 목사



푸른초장 이진희 목사



SNS 프리즘 안에서... 16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press.net | chpress@g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3.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4.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5.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 목회전공
- + 선교전공

2021년 가을학기 온라인 강의 일정

8월 23일-10월 17일
DI8530 Biblical Theology of World Mission (세계선교의 성경신학)

10월 18일-12월 18일
DI8160 Church Planting & Growth (교회 개척과 성장학)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E-mail: gtskoreanstudies@grace.edu
대표전화: 574-372-5100 (ex 6335), 574-334-7980(한국어)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seminary.grace.edu

발행인 칼럼

보이지 않는 것에 눈 뜨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잠시 눈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인생임을 성경을 말하고 있다. 과연 그렇다. 분명히 보였는데 이제는 이 땅에서 다시는 볼 수가 없다. 며칠 전 은퇴 장로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다. 더는 뵈지 못한다고 더는 안계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존재가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않아도 그는 천상에 계시다. 비가시적(非可視的) 천상계(天上帝)도 있다.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를 가르치셨다. 하늘과 땅이 있다. 땅에서는 하늘을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늘을 보는 듯 살 수 있고, 또 보면서 살아야 한다. 어리석은 인생의 특징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안다. 진정한 실체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후 4:18)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다.

기초(基礎)이다. 1931년 완공된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의 건축가에게 사람들이 물었다. “이 건물을 짓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건축가는 거침없이 대답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초 공사였습니다” 그렇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도 다민족을 위한 새 성전을 짓고 있다. 기초 공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줄은 상상도 못했다.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중요함을 깊이 깨달았다. 견고한 기초위에 세운 102층 짜리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세월이 바뀌어도 견고히 서 있는 인생을 살려면 내 인생의 기초를 다시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성령(聖靈)이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요 3:8) 지난 9월 1일 뉴욕 일원(一圓)에 몰아친 태풍 ‘아이디’는 보이지 않는 바람이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성령도 바람 같은 ‘프뉴마’이다.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영향력은 크다. 상상할 수 없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는 뚜렷이 맺힌다. 이제는 ‘아이디’만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바람 같은 성령, ‘프뉴마’를 사모해야 하지 않겠는가.

천국(天國)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집에 초대장을 받은 자들이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언젠간 그 집에 들어갈 것이다. 보이지 않는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 같은 삶을 누리는 자가 적지 않다. 이미 천국을 보는 자의 삶이다. 만일 지금의 현실을 넘어선 세계를 볼 수 없다면 오늘 같은 날은 더 절망이 될 것이다. 오늘은 9.11 테러가 일어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날 같은 믿음을 가진 가족을 이 땅에서 잃었으나 낙심하지 않는다. 그곳에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그날이 또 한해 다가왔음을 기뻐한다. 보이지 않는 영광의 그곳을 반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 주여.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뜨게 하옵소서!”

중동/중앙아시아 새로운 지하디즘 시대 우려

BBC, 탈레반 아프간 점령 이후 결집하는 극우이슬람집단 차이점 보도

전 세계 지하디스트들은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축하했다. 예멘과 다른 국가들은 불꽃놀이를 벌였고, 소말리아에서는 사탕을 나눠주며, 남아시아 전역의 이슬람 단체들은 서방 군대의 철수는 끈질기게 대항한 끝에 이룬 승리라며 자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지하디즘 시대를 우려한다. 가장 큰 위협은 알카에다와 일명 이슬람국가(IS)와 연관된 단체들이다. 이들 세력은 최근 몇 년 사이 그 힘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활발하다.

미국과의 협정에 따라 탈레반은 서구의 표적들을 공격하려는 이

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을 숨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탈레반과 알카에다는 여전히 밀접한 관계다.

일각에선 알카에다의 경쟁 상대인 IS가 자신들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IS의 아프간 지부(IS-K)는 지난 26일 카불 공항 외곽에서 폭탄 테러 공격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미군 13명을 포함 170여 명이 사망했다. 과연 이들 세 집단의 차이점은 무엇일까(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aliban, ISIS, and Al-Qaeda?)

뉴욕의 안보연구소 소우판 센터의 연구원이자 분석가인 폴린 클라크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그는 BBC에 “탈레반은 아프간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라며 “알카에다는 네트워크 재건을 모색하는 초국가적 지하드 조직이고, IS도 마찬가지로 IS가 알카에다와 탈레반 양측에 치명적인 숙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힘겨운 싸움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카에다와 탈레반은 1980년대 후반 소련의 침공과 1990년대 초 아프간 내부 투쟁에 저항하며 등장했다.

역할을 했다. 빈 라덴은 이슬람 세계 각지에서 알카에다 인원을 모집했다.

겟다는 것이었다. 탈레반은 아프간 남서부 지역부터 빠르게 영향력을 확장

했으며, 알카에다의 근본 원칙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AQI는 2006년 다른 극단주의 단체들을 합병하고 '이라크 이슬람국가(ISI)'라는 명칭을 채택했다. 2011년 이후 전쟁으로 황폐해진 시리아에서 세력을 확장한 이들은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ISIL)'로 개칭하면서, 곧바로 칼리프(이슬람제국 통치자)가 지배하는 정권을 자처하며 알카에다와 거리를 두었다.

탈레반, 알카에다, IS의 공통점은 수니파 이슬람 근본주의 교리를 강경하게 해석한다는 것이다.



공통점은 수니파 이슬람 근본주의 교리 강경 해석 탈레반 관심은 아프간-알카에다, IS는 세계적 야욕

그로부터 몇 년 후, IS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응해 창설된 알카에다의 지역 조직 '이라크 알카에다 지부(AQI)'의 잔존 세력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IS는 2007년 이라크에 미군 병력이 증가한 이후 몇 년간 자취를 감췄다가 2011년 다시 등장했다.

알카에다는 1980년대 말 사우디 갑부 출신의 오사마 빈 라덴이 창설했다. “토대” 또는 “네트워크”라는 뜻의 알카에다는 소련에 대항하는 무슬림들의 물류 및 무기의 보급로

탈레반은 파슈토어로 “학생”이라는 뜻으로, 1990년대 초 파키스탄 북부에서 소련군의 아프간 철수 후 등장했다. 탈레반은 대체로 파슈툰족이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강경한 수니파 이슬람을 설파하는 신학교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학교에는 대부분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금이 투입됐다.

파키스탄과 아프간에 걸쳐 있는 파슈툰 지역에서 탈레반이 한 약속은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고, 집권 후 엄격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시행하

했다. 이들은 1996년 카불을 점령해 부르하누딘 라바니 전 대통령 정권을 전복했다. 1998년까지 탈레반은 아프간 영토의 90% 가까이 장악했다.

그 무렵 알카에다는 탈레반의 물류 지원망 이상으로 훨씬 큰 역할을 했고 전 세계적 인 야욕을 품은 지하디스트 조직으로 변했다. 알카에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은 알카에다를 환영했다.

하지만 AQI는 이라크에 개입하는 외세에 저항하는 핵심 주체가 됐고, 세계적인 포부를

런던 킹스칼리지 대학원의 마이클 그로피는 “세 집단 모두 사회, 정치는 종교와 분리될 수 없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그로피는 BBC에 “모두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행하는 폭력은 정당하다고 믿는다”며 “이러한 폭력은 의무이고, 싸우지 않는다면 나쁜 무슬림”이라고 덧붙였다.

그로피는 이 같은 강경주의는 ‘위협’과 관련한 신성한 문구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비롯됐다고 말한다.

(9면으로 계속)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 과목 -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 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의외의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 안 내 - 지아익(임플란트), 구강외과, 틀니, 보철치과, 미용성형치과, 신장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Midwest University와 함께 동역할 인재를 찾습니다
(부설- MIRI 연구소,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 소집특강 및 Online으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 가능

• 교수 1. 경영, 마케팅, 리더십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2. 신학, 선교, 목회,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국방, 항공, 상담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 소지자
* Full time or Part time - Online Teaching, 전공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할수 있는 분

• 사역 개발 분야 - 산학협력, 인력개발, IT, 마케팅, 항공, 어카운팅과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자

• 자격 1. 미국에서 High School 과 College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2.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3. 영주권 스폰 가능
4. 관련분야 경력자 선호

• 제출서류: 이력서,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 자기 소개서

• 제출처: jp@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c@midwest.edu

텍사스 보면 미 ...

(1면에서 계속)

러셀 무어(Russell Moore) 목사는 이러한 파장에 대해 "우리는 인간의 생명이 권력이나 유용성이 아니라 본질적인 존엄성에 의해 정의된다는 비전을 사법부, 심지어 입법부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비전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크리스천들의 동참을 요구했다. 텍사스 주지사는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수칙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애벗 주지사는 지난 8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차 금지명령을 내렸다. 텍사스는 현재 델타 변이로 인해 다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1일 CNN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6만 41명, 사망자가 1326명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전체 확진자의 40% 이상이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5개주에서 발생했다. 또 사망자의 3분의 1이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작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즐기차게 주장해온 '선거 사

기문'을 뒷받침하는 법안도 텍사스 주에서 만들어졌다. 텍사스 주의회는 지난 31일 유권자의 투표를 더 어렵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차에 탑승한 채로 하는 '드라이브스루 투표'와 '24시간 사전 투표'를 금지시켰다. 또 우편투표에 필요한 신분증을 추가하고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부재자 투표 요청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등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여겨지는 투표행태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부정투표자를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대부분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들이 선거법 개정에도 동참하고 있다. 텍사스 주에

앞서서 조지아, 플로리다, 애리조나 주 등 18개 주가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법안이 유색인종이나 장애인 유권자들의 투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광범위한 부정선거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텍사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단체인 텍사스를 떠나 워싱턴DC에 체류하는 등 88일이나 저항했지만 실패했다. 이날도 하원에서 필리버스터로 반대 토론을 진행하며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했지만 저지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안을 무효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리더 봉사자, 교회 ...

(1면에서 계속)

많은 리더들이 '위임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럴 땐 리더들에게 위임에 관한 간단한 책을 읽게 한다. 그들에게 훈련받을 기회를 주고, 리더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교회 리더십의 귀중한 부분으로 대우해야 한다. 봉사자들은 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그들이 더욱 대단한 것은 종종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섬긴다는 것이다. 봉사자들에게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기를 전혀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와 형제자매를 겸손하게 섬길 의지가 있어야 한다.

리더 봉사자의 좋은 예

이러한 겸손한 봉사자 리더의 한 좋은 예는 데일이라는 우리 교회의 리더다.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개발해야 할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소그룹 사역'이었다. 그는 새신자였지만 나는 그가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 전 문가가 되기를 요청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라고 권했고, 소그룹 컨퍼런스 같은 곳에 돈을 지불하고 그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세미나에 갔다가 혼자서 책을 대여섯 권 사서 돌아왔고,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함께 그 계획을 검토했고 내가 전에 참석했던 세미나에서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이곳저곳을 수정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에게 일을 맡겼다. 그는 우리 교회의 소그룹을 대변했을 뿐만 아니라 소그룹의 지도자들을 이끌기도 했다. 그는 리더 봉사자의 완벽한 모델이었다. 그는 소그룹의 새신자로 시작해서 소그룹을 이끌었고, 후에는 몇몇 그룹의 소그룹들을 감독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교회의 모든 소그룹을 관리하게 됐다. 더욱이 그는 이 모든 것을 풀타임 직장을 가진 채로 했다. 데일은 우리 교회에 필수적인 리더십이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봉사자들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봉사자들은 몇몇의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앞다시피 봉사자들이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때로 사람을 고용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 사역부서의 일원이었다가, 그 부서의 부분적인 리더로서 이끌다가, 그 부서의 장으로 섬기게 되는 봉사자들은 새롭게 고용된 사람보다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봉사 아니면 유급?

이에 대해 종종 논쟁이 벌어지지만 작은 교회일수록 모든 사역에 직원을 고용하는 것에 신중해야만 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할 때 꼭 돈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왜 사람들에게는 돈을 주는데 저 사람은 안 줘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만약 직원을 채용해서 교회 일을 맡겨야 한다면 그것보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자원봉사자 리더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일하고 사역하는 데 돈을 받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만드지 않음과 동시에, 우리의 리더십 역량을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봉사자가 사역 전체를 총괄하든, 소그룹 하나를 이끌든, 교회에 기부금을 편성하든, 예배 중 아기를 사랑스럽게 보살피든, 의자를 놓든, 문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맞이하든, 봉사자들은 교회의 사역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들을

맡고 있다. 이처럼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없이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목회자와 교회지도자는 교회에서의 자신의 역할이 특정 봉사자의 역할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거나, 쓰레기를 치우는 봉사자보다 아동 부서 부장을 맡는 봉사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모두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과 교회를 위해 자신을 쏟아내고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사랑하신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결같은 감사를 전하자.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진정한 리더십은 가장 매력적이거나 가장 화려한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손과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이다. 우리 교회들은 봉사자 팀 없이는 그들이 도달하려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고,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해야 한다. 비록 세상이 그들의 위대한 봉사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보고 있고, 또 감사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다. 모든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시론

심과 일



최해근 목사 (용고메리교회)

1년에 한 번은 꼭 찾아오는 그리고 기다려지는 공휴일 중의 하나가 있다면 바로 노동절입니다. 한 여름의 무더위도 식어가고 자녀들은 새롭게 학교를 시작하는, 특히 취학하는 자녀나 대학으로 진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분명히 무엇인가 새롭게 한 획을 긋는 시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절 연휴가 되면 "벌써 그 아이가 학교에 간다구?" 혹은 "벌써 둘째가 대학에 입학했다고?" 그런 식의 질문을 하다 나도 모르게 "아, 그렇게 시간이 지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성큼 내 앞에 다가선 낯선 시간에게 이상하게도

섬섬함을 느끼게 됩니다. 초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우리 삶에 찾아온 세월이라는 친구! 그 친구가 찾아왔음을 느낄 때마다 우리 삶에 던져지는 질문들 중의 하나는 "나는 제대로 살아왔을까?" 입니다. 낯선 타국에서 이민자의 걸음을 견다보니 이 땅의 토박이들보다 더 바쁘게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일에 대해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바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을 좋은 덕목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어느덧 나이가 들어 은퇴하게 되고 이제는 내 몸 하나 나 혼자 견사하기도 힘들 만큼 세월을 보낸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 중의 하나는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뭔가 제대로 된 방향을 걷지 못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다시 한 번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여유를 갖고 삶의 방향을 음미하며 좀 더 천천히 걸을 것이며 먹고 살아야 하는 생계문제로 인해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던 자녀들과도 더 많은 시간과 대화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좀 더 근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는 언제나 '일'과 '쉼'이라는 두 개의 선택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일에 빠지다 보니 어느덧 '쉼'을 잊어버렸고 그렇게 삶의 종착역에도 착하고 보니 챙기지 못하고 버려두고 온 귀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쉼은 우리의 걸음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조정해주고 잡아주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 창조의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제7일 쯤은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6일 동안의 창조사역 후 제7일째가 안식의 날이 되었지만 인간 편에서는 창조된 바로 그 다음날 안식을 갖게 되었고 그런 안식을 갖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맡기신 소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노동에 앞서 '안식'을 먼저 가져야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1분이라도 더 아껴 '일'하는데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안식'은 무가치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창조사건의 흐름 속에서 오늘 인류의 삶을 묘사해 본다면 제6일째 창조되고 제7일째에 안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7일째에도 바로 삶의 터전으로 달려가는, 그리고 그 다음 7일째에도 '안식'을 포기하고 삶의 터전으로 또 뛰어가는 '노동'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에서 노동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인류에게 찾아온 수많은 문제와 갈등.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의외로 간단해 보입니다. 바로 '안식'을 가진 다음에 '노동 혹은 일'을 하는 순서의 회복입니다. '안식'의 시간을 가지며 창조주에 대해 생각하고 그 창조주 앞에선 피조물의 의미와 가치와 방향을 정한 후에 '생업의 현장'으로 나아간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방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노동과 땀을 내 것으로 빼앗는 모습도, 내 주변의 생태계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마구잡이로 뒤집어엎는 그런 걸음도 주저하게 만들고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안식과 쉼을 잊어버린 채 더 높은 생산성과 효율을 위해 정신없이 앞을 향해 뛰어온 인류가 오늘 뼈저리게 지불하고 있는 삶의 교훈을 보며 창조주 앞에서의 더 깊은 안식 속에서 위로 창조주를 묵상하고 옆으로 동료 사람을 바르게 주목하는 그런 삶을 소망하며, 살품.

hankschoi@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최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최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 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 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최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유스톤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공고
텍사스주의 유스톤시에 위치한 유스톤 한인교회(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초교파, 자체성전보유, 담임 목사님을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1. 자격요건
1)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 목사
2) 이민교회에서 3년이상 담임목사(부목사 포함) 경력 있으신 분
3)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소지자
4)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 가능한 분
2. 제출서류
1) 본인 및 사모의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가족사진 첨부)
2) 목회 철학/비전 계획서 및 간증서
3) 6개월 이내에 행한 설교 영상 2회분
4) 대학교 및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5) 목사 안수 증명서
6) 추천서(추천인 연락처 기재)
3. 지원서류 접수 안내
1) 제출방법: 서류는 청빙위원회 이메일 주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청빙위원회 email address : kcch2019@gmail.com
2) 설교 CD는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교회 우편 주소
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c/o Senior Pastor Nominating Committee 10410 Clay Rd, Houston, TX 77041
3) 본 교회 청빙 절차에 따라서 서류심사 후 개별통지 하겠습니다.
4) 제출된 서류는 청빙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5) 지원 관련 문의는 상기 이메일 주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목회를 잘하려면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30년 목회를 한 어느 목사의 목회 잡언을 한 번씩 읽어두면 좋을 것 같아 그대로 옮겨본다.

01. 목사는 하나님 외에 내 편이 없다. 02. 개척목회는 일꾼이 없어 힘들고, 청빙목회는 일꾼 때문에 힘들다. 03.

목사는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아야 한다. 04.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를 그의 생활과 함께 듣는다. 05. 목회자가 스캔들에 걸리면 날개 없는 새와 같다. 06. 목회자의 건강은 영력과 비례한다. 07. 목회자는 학위보다 성경에 능해야 한다. 08. 목회 중 가까운 사람일수록 입이 무거워야 한다. 09. 목회 중 가까이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태도가 문제다. 10. 은사 받은 사람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면 교회에 해악이 된다.

11. 목회의 본질(원리)이 없는 방법목회는 한계에 이른다. 12. 정치에 능한 교역자, 이름은 나지만 존경은 받지 못한다. 13. 목회자 자신의 은사를 일찍이 개발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14. 목양지를 떠날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교회성장은 정지된다. 15. 사랑의 지평이 넓을수록 영적

능력은 커진다. 16. 세미나 등 남의 것만 가지고 양을 먹이면 내 양이 되기 어렵다. 17. 복음의 핵심은 안면 가리고 반복하는 용기를 가져라(십자가, 부활, 천국, 지옥, 재림 등). 18. 목사의 심방 회의 행사 상담 등 활동이 하나님과의 기도시간을 대체할 수 없다. 19. 교회가 잘 되어나간다고 느낄 때 기도의 비상을 걸어야 한다. 20. 영적 운동이 강할수록 비탄의 적이 생기는 것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

21. 사탄은 우리가 쳐 놓은 캠프 안에서 동거한다. 22. 개혁 시 일꾼이 필요하다고 아무나 세우지 말라. 23. 처음 일군을 세울 때 필히 한 사람은 세우지 말라. 나중에 왕초 노릇하기 쉽다. 24. 사회에서 장(長)자리 붙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일은 안 하면서 자기 포지션만을 중시한다. 25. 뒤돌아보면 때로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 가까운 사람보다 유익할 때가 있다. 26. 내게 까다로운 사람은 심중팔구 인정해달라는 또 다른 표현이다. 27. 반복하는 용기를 가져라(십자가, 부활, 천국, 지옥, 재림 등). 28. 목사의 권위주의의 탈을 벗어 버려라,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종일뿐이다. 29. 하나님은 나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사 용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자. 30. 모든 일에 원칙을 고수 하되 까다로운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말라.

31. 내성적인 사람의 필수 무장은 "강하고 담대하라"이고 활동적인 사람은 "관용과 인내"다. 32. 교회 영적 분위기와 능력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를 전략적 수준으로 끌어올려라. 33. 오래 된 신자는 발성기도만 아니라 침묵기도(묵상, 관상)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라. 33. 목회자는 교회에서

지급하는 사례비에 다소 불문하고 불평은 하지 말라. 34. 목회문제나 인생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열쇠는 '사랑'이다. 35. 목회자는 일찍이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이 필요하다. 36. 목회자는 자기의 목회를 컨설팅해줄 수 있는 선배 한 사람이 필요하다. 37. 목회자는 목회를 핑계로 가족을 돌보는 일을 간과하면 후회하기 쉽다. 38. 목회 중 사모의 기도와 헌신은 목회자의 능력에 시너지 효과가 붙게 한다. 39. 교인들에게 전도하라고 하지 말고 한 영혼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 덜 받는다. 40. 목사는 무거운 직책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Nothing(나는 아무것도 아님)으로 출발해보라. 목회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출처: 목양연구>

jkym47@gmail.com

푸/른/초/장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들의 삶이다.

아브라함도 가나안에서 살면서 먼 고향 하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국 나그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집을 찼다 풀었다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돌아가지는 않았다.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가 나온바 분향(하란)을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분향(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온바 분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가고 싶었을지 모르나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분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히11:15-16).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계속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가나안에 온 것을 후회도 했겠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가지는 않

다. 영철이와 철수가 땅 파먹기 놀이를 하고 있다. 영철이는 땅을 많이 파다. 철수는 조금밖에 파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해는 저물고 어둑어둑해 갔다. 그런데 저쪽에서 철수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철수야. 그만 놀고 들어와 밥 먹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철수는 하루 종일 파놓은 땅을 미련 없이 버리고 집으로 달려간다. 그런데 영철이는 우두커니 혼자 남아 있다. 아무도 부르러 오는 사람이 없다. 집 없는 아이였던 것이다. 땅을 아무리 많이 파으면 뭐 하는가?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영철이 이런 것이다. 지금 다 열심히 땅 파먹기 놀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탄 땅 다 버리고 가야 한다. 땅을 많이 파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그 땅이 다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너무 땅 파먹기 놀이에만 골몰하지 말라. 영원히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당당할 것이다. 다른

다. 영철이와 철수가 땅 파먹기 놀이를 하고 있다. 영철이는 땅을 많이 파다. 철수는 조금밖에 파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해는 저물고 어둑어둑해 갔다. 그런데 저쪽에서 철수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철수야. 그만 놀고 들어와 밥 먹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철수는 하루 종일 파놓은 땅을 미련 없이 버리고 집으로 달려간다. 그런데 영철이는 우두커니 혼자 남아 있다. 아무도 부르러 오는 사람이 없다. 집 없는 아이였던 것이다. 땅을 아무리 많이 파으면 뭐 하는가?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영철이 이런 것이다. 지금 다 열심히 땅 파먹기 놀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탄 땅 다 버리고 가야 한다. 땅을 많이 파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그 땅이 다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너무 땅 파먹기 놀이에만 골몰하지 말라. 영원히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당당할 것이다. 다른

다. 영철이와 철수가 땅 파먹기 놀이를 하고 있다. 영철이는 땅을 많이 파다. 철수는 조금밖에 파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해는 저물고 어둑어둑해 갔다. 그런데 저쪽에서 철수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철수야. 그만 놀고 들어와 밥 먹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철수는 하루 종일 파놓은 땅을 미련 없이 버리고 집으로 달려간다. 그런데 영철이는 우두커니 혼자 남아 있다. 아무도 부르러 오는 사람이 없다. 집 없는 아이였던 것이다. 땅을 아무리 많이 파면 뭐 하는가?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영철이 이런 것이다. 지금 다 열심히 땅 파먹기 놀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탄 땅 다 버리고 가야 한다. 땅을 많이 파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그 땅이 다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너무 땅 파먹기 놀이에만 골몰하지 말라. 영원히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당당할 것이다. 다른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국 나그네

히브리서 11장 9-16절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히11:9).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할 때 욕심 부리지 말고 살자, 세상에 집착하지 말자,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될 것이다. 다 놓고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등바등 대며 살지 말자,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구름에 달 가듯이 마음 비우고 초연하게 살자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 하는 나그네는 다르다.

나그네와 같이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있다.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창 23:4).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출18:3),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출 22:21).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대상29:15).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벧전2:21).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히11:13).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히11:9, 새번역).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행 17:21).

여기서 나그네는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 몸붙여 사는 외국인 이민자 이주자를 가리키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민자로 살았다. 야곱의 식구들도 이집트에서 이민자로 살았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도 이민자로 살았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도 세계 곳곳에서 이민자로 살아왔다. 이런 이민자를 성경에서는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다.

나그네는 그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외지인이다. stranger다. 객지에 사는 사람이다.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떠나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한시적으로 머물러 사는 사람이다. 언제든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한마디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떠나 다른 곳에 가서 몸붙여 사는 사람을 말한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에 올 때 아메리

칸 드림을 꿈꾸며 왔는데, 와서 보니까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였다. 미국에 오기만 하면 좋은 집을 짓고 은금이 증식되며 우양이 번성하고 소유가 넉넉하게 될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광야였다. 주말마다 뒷마당에서 파티를 열 것을 상상하고 왔는데 와서는 어떻게 살았는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영주권도 안 나오고 의료보험도 없고 언제 설지도 모르는 중고차 타고 다녀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브라함도 부푼 꿈을 안고 가나안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광야였다. 가나안에서 아브라

파곤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살고 있던 곳은 블레셋 땅이었기 때문이다. 남의 나라에 몸붙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싸울 수 없었다. 아니 싸울만한 힘도 없었다. 나가려면 나가야 했다. 이것이 남의 땅에 몸붙여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다.

성경이 우리는 나그네다 라고 말할 때 집을 가볍게 지고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나그네처럼 떠돌아가는 것이니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그렇게 세상에 초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세상은 일장춘몽이니 세

상은 브엘세바에 자리 잡고 살았다. 그곳은 가나안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남단에 자리 잡고 있다. 브엘세바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과 살 수 없는 곳의 경계선에 자리 잡고 있다. 브엘세바만 지나면 광야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가장 살기 힘든 곳에서 살았다. 가나안에 몸붙여 사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변방에서 살아야 했다. 결국 주변으로 살아야 했다. 결국 주류로 들어가지 못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오자마자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양식을 찾아서 이집트로 내려가야만 했다. 기근이 들어오면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에 내려가지 않았다. 창고에 모아둔 곡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양식이 떨어지면 이웃에게서 구하면 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돈이 있어도 양식을 구할 수 없었다. 기근이 온 상황에서 누가 아브라함 같은 이방인에게 양식을 팔겠는가?

이삭이 7번이나 우물을 빼앗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다. 왜 우물을 빼앗겼을까? 왜 빼앗기는데도 가만히 있었을까? 왜 같은 일을 7번이나 당했을까? 이삭이 온유한 사람이라서 다투는 것을 싫어해서 그랬을까?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올 테니까 순순히 내주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던 것일까? 아니다. 이삭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물을 빼앗기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상에 빠져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한 번 왔다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인생이니 덧없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나그네라고 말할 때, 그 뜻은 이 세상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고통을 당하고 역olum한 일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박해도 받고 내어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도 그렇게 살았다. 모세도 그렇게 살았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초대 교인들도 그렇게 살았다.

이민 와서 사는 사람 처놓고 하늘에 지나가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언제나 나도 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 없을 것이다. 미국에 올 때는 다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오지만 와서 살다 보면 현실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다. 그래서 고국을 떠난 것을 후회할 때도 많다. 처음에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돌아가자니 자존심 상하고,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자니 그것도 염두가 안 나고, 돌아간다고 뺏겨온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래저래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민자

였다. 가나안에서 고향에서처럼 좋은 집을 짓고 살지는 못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그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보다 더 좋은 가나안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떠나온 분향보다 더 좋은(사실은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분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랬기 때문에 가나안에서의 광야와 같은 삶을 버티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에 살면서 미국 이야기보다 한국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 미국보다 한국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한다. 마음이 늘 고국에 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민자들은 평생 고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 우리가 고향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늘 가나안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 먼 고향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마다 산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분향에 돌아가고 싶을 때마다 살았다. 하늘 가나안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 그곳을 사모하며 살았다. 그의 관심은 가나안에서 좋은 집을 짓고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넉넉하게 되는데 있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늘 하늘 가나안에 가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도 서글퍼하지 않았다. 좋은 집을 짓고 살지 못해도, 가나안을 누리지 못해도, 좋은 집을 짓고 살지 못해도 괜찮지 않았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워하

사람이 타고 다니는 좋은 차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포니를 타고 다녀도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우리에게 "더 나은 분향"(히11:15)이 있지 않은가? 더 좋은 가나안, 영원한 가나안, 하늘 가나안, "하나님이 계나안에서의 광야와 같은 삶을 버티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에 살면서 미국 이야기보다 한국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 미국보다 한국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한다. 마음이 늘 고국에 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민자들은 평생 고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 우리가 고향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늘 가나안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 먼 고향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마다 산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분향에 돌아가고 싶을 때마다 살았다. 하늘 가나안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 그곳을 사모하며 살았다. 그의 관심은 가나안에서 좋은 집을 짓고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넉넉하게 되는데 있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늘 하늘 가나안에 가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도 서글퍼하지 않았다. 좋은 집을 짓고 살지 못해도, 가나안을 누리지 못해도, 좋은 집을 짓고 살지 못해도 괜찮지 않았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워하

다. 영철이와 철수가 땅 파먹기 놀이를 하고 있다. 영철이는 땅을 많이 파다. 철수는 조금밖에 파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해는 저물고 어둑어둑해 갔다. 그런데 저쪽에서 철수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철수야. 그만 놀고 들어와 밥 먹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철수는 하루 종일 파놓은 땅을 미련 없이 버리고 집으로 달려간다. 그런데 영철이는 우두커니 혼자 남아 있다. 아무도 부르러 오는 사람이 없다. 집 없는 아이였던 것이다. 땅을 아무리 많이 파면 뭐 하는가?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영철이 이런 것이다. 지금 다 열심히 땅 파먹기 놀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탄 땅 다 버리고 가야 한다. 땅을 많이 파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그 땅이 다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너무 땅 파먹기 놀이에만 골몰하지 말라. 영원히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당당할 것이다. 다른

다. 영철이와 철수가 땅 파먹기 놀이를 하고 있다. 영철이는 땅을 많이 파다. 철수는 조금밖에 파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해는 저물고 어둑어둑해 갔다. 그런데 저쪽에서 철수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철수야. 그만 놀고 들어와 밥 먹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철수는 하루 종일 파놓은 땅을 미련 없이 버리고 집으로 달려간다. 그런데 영철이는 우두커니 혼자 남아 있다. 아무도 부르러 오는 사람이 없다. 집 없는 아이였던 것이다. 땅을 아무리 많이 파면 뭐 하는가?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영철이 이런 것이다. 지금 다 열심히 땅 파먹기 놀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탄 땅 다 버리고 가야 한다. 땅을 많이 파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그 땅이 다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너무 땅 파먹기 놀이에만 골몰하지 말라. 영원히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당당할 것이다. 다른

다. 영철이와 철수가 땅 파먹기 놀이를 하고 있다. 영철이는 땅을 많이 파다. 철수는 조금밖에 파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해는 저물고 어둑어둑해 갔다. 그런데 저쪽에서 철수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철수야. 그만 놀고 들어와 밥 먹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철수는 하루 종일 파놓은 땅을 미련 없이 버리고 집으로 달려간다. 그런데 영철이는 우두커니 혼자 남아 있다. 아무도 부르러 오는 사람이 없다. 집 없는 아이였던 것이다. 땅을 아무리 많이 파면 뭐 하는가?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영철이 이런 것이다. 지금 다 열심히 땅 파먹기 놀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탄 땅 다 버리고 가야 한다. 땅을 많이 파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그 땅이 다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너무 땅 파먹기 놀이에만 골몰하지 말라. 영원히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당당할 것이다. 다른

jinhee1004@yahoo.com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작은 커피 한잔의 힘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 스타벅스의 동성애 및 전반적 "성향" 포용(LGBTQ+ Inclusion History)역사 연대기

향긋한 커피 한두 잔을 산 "순수한 내 돈"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저 아침에 잠을 깨기 위해 마시는 스타벅스 커피 한잔의 순수함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국가에까지 해를 끼칠 수 있을까요?

스타벅스가 설립된 중요한 목적 중 한 가지, 그들의 비즈니스 가치관, 그들이 지향하는 목적과 골(goal), 더 나아가 그들의 실제적인 비즈니스 정책과 선택들은 지금까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찌니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숨겨진 뿌리의 실체를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확실히 분별력을 가르쳐주시는 것이지요.

미국 속담에는 "Action speaks louder than words", "행동이 (화려한) 말보다 (진실) 크게 말한다"라고 하지요.

이제부터 스타벅스 회사의 "스타벅스 스토리와 뉴스"에 올려진 "스타벅스의 동성애 및 전반적 "성향" 포용(LGBTQ+ Inclusion History)역사 연대기"를 소개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스타벅스는 모두가 환영받는 문화를 만들고자 헌신해왔다. 우리 스타벅스는 레즈비언과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그리고 퀴어 공동체와 적극 연대하여 온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2021년 스타벅스 회사가 LGBTQ+ Pride Month를 축하하며 발표한 연설).

2021년

1. LGBTQ+ 커뮤니티의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스타벅스는 워싱턴 주에서 트랜스젠더와 퀴어 및 소외된 자들에게 저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Lavender Rights Project에게 5만 달러를 기부하고, 전국에 흩어져있는 트랜스젠더들을 일반인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증진시키는 트랜스젠더 운동단체인 National Center for



스타벅스 extra shot마다 동성애의 긍지를 "reward-상급"으로 주세요 라는 마케팅 문구

Transgender Equity에게 역시 5만 달러를 기부함.

2. Dennis Brockman을 'inclusion & diversity 포용과 다양성' 부서팀의 책임자로 임명
스타벅스는 Dennis Brockman을 '포용과 다양성' 부서팀의 부사장(Chief VP)으로까지 임명함. Brockman은 13년간 스타벅스 파트너로써 (동성애) '포용적 관점'이 회사의 최고 수준에서 나타내지도록 헌신해오고 있었다.

3. 미전역 "동성애 인권 캠페인" 회사 평등지수 '만점!'
스타벅스는 지난 11년 동안 "LGBTQ Equality - 동성애 인권 평등"을 위한 회사 방침과 실천에 있어서 인권 캠페인 회사 평등지수를 계속 "만점" 100점을 받고 있다.

2020년

1. 동성애 인권 비영리 운동 단체에 가장 많은 재정지지를 해준 기업으로 상을 받음
2020년에는 The Starbucks Foundation이 The LGBTQ+ 동성애운동 단체들에게 연간 88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총 15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였다고 그들의 재정리포트에 기록하고 있음.

2. COVID-19 때 LGBTQ 단체들 돕기 운동 펼치다
COVID-19의 영향으로

LGBTQ+ 커뮤니티 지원을 돕기 위해 "동성애 긍지의 달 (Pride Month)"을 기념하여 Human Rights Campaign(HRC)는 큰 친동성애 인권단체)과 National Center for Transgender Equality(트랜스젠더 평등운동단체)에 총 10만 달러를 기부.

3. 도시별로 동성애 비영리 단체들에게 보조금(grants)을 수상(award) 하다.
스타벅스 재단은 LGBTQ+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100여 개의 비영리단체들에게 총 3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수상(awarded)했다고 발표함.

4. '동성애 평등-LGBTQ+ Equality'을 최고 잘 지키는 회사로 또 다시 100점 받음
스타벅스는 10년째 LGBTQ+ 평등을 위한 기업정책과 관행에 따라 인권운동 기업평등지수에서 100% 점수를 받다.

5. #whatsyourname campaign
스타벅스 영국은 대중 앞에서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면서 일부 트랜스젠더와 성별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행동을 축하하기 위해 #Whatsyourname 캠페인 시작.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젊고 어린 트랜스젠더들과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10만 파운드를 모금.

2019년

1. Building a culture of inclusion and diversity-포용과 다양성의 문화 구축
자사의 글로벌 포용 및 다양성 전략을 담당하는 회사의 첫 번째 최고 포용 및 다양성 책임자를 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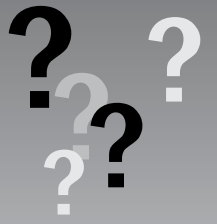
2. 스타벅스 기업의 동성애 파트너들의 '가족사자 늘리기 전략' 지지
임양 비용을 넘어 보험회사 혜택을 확대-부모가 되고 싶어 하는 동성커플이나 출산 서비스를 원하는 동성애자에게 의료보험 회사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는 파트너를 돕기 위해 임양 비용을 넘어서 출산 혜택을 확대시켜준다. 가족확장보상프로그램은 임양·대리모 또는 자궁내수정에 최대 1만 달러를 지원하고 평생 3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또한 모든 스타벅스 의료계획에 따라 동성애자 출산수당의 수명 최대치를 2만5천 달러로, 처방약은 1만 달러로 늘린다.

3. Anti-bias curriculum-편견에 반대하는 교육과정
스타벅스 기업은 애리조나주립대 (Arizona State University)와 공동으로 15개의 무료수업과정을 대중들이 온라인에서 마칠 수 있는 "To Be Welcoming 커리큘럼"을 출시함.

15개의 무료수업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
"성편견(Sexuality Bias)" 및 "Welcoming Dialogue on Gender Bias-인간성별의 편견 및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잘못된 편견을 해소하기" 등등... 성별이 과학적으로도 2개밖에 안된다는 것을 "편견"으로 결정을 지은 상태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바꾸려는 독사과와 같은 수업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어떤 장로님은 주일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주시옵소서" 라고 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라고 하실 때도 있는데 어느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요? 성경에서는 복과 축복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에나하임에서 Dong Choi

A: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 중에서 깊이 생각지 않고 구분 없이 쓰므로 혼동을 주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질문이 바른 그런 것입니다. 장로님들의 강단기도 뿐 아니라 목사의 설교 중에서도 "하나님 축복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등의 용어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합니다. 사실 이런 용어들은 개념적으로 잘못된 용어입니다. 한국교회는 축복과 복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일들이 많은데 정정하여 바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국어사전적으로 볼 때도 복과 축복은 확실히 다릅니다. 복은 인간이 받는 영육간의 좋은 상태인 복 자체를 말하고 축복은 국어사전에는 "행복을 비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축복(祝福)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뿐,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가 맞아

이란 단어는 제삼자가 복을 받기 위해 기도의 대상자인 하나님께 내가 복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복은 유일신인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외에는 복을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降福/강복) 분이십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8절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부터 시작하여 계시록 22장 14절의 "자기 두 루마리를 빼는 자는 복이 있으며"에 이르기까지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기도해야 옳습니다. "하나님 축복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설교시에 말하거나 기도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에게 복을 빌어(축복)주시옵소서"라는 의미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격하시키는 어불성설입니다. 축복을 요청하는 것은 인간관계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은 서로를 축복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은총의 총체적인 표현이 복이고 축복은 인간이 하나님께 제삼자를 위해 기복(祈福)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그러나 제2위인 예수님이 하나님께 빌어 축복하셨다는 내용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마26:26),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막10:16),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막14:22).

아무쪼록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인간이 복의 수여자인 하나님께 구하는 축복을 구분하는 것을 실례로 합니다. 1)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창14:19). 2)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예배에 오는 자들을 계단에서 축복하며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to bless) 이르되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will bless)(민6:23-27). 3)"여호와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bless)하였다"(시118:26).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7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7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1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조명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믿음과 0.2%의 가능성 김영길 클린출판사	 돌파하는 믿음 밥 소르기 스텔스톤	 간절한 매달림 토미 테니 규장	 세상이 흉내낼수 없는 기독교 제라드 왈슨 생명의 말씀사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피터 스키지로 두란노
----------	-----------------------------------	------------------------------	----------------------------	--	------------------------------------

회원사
남북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찬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찬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찬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	---	---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펌킨 스파이스 라떼

Is Pumpkin Spice Latte back at Starbucks?

The Pumpkin Spice Latte and the Pumpkin Spice Frappuccino will be back in Starbucks stores for a limited time from September 2nd.

네파이 켄터키 애즈베리신학교에서 박사공부를 시작한 2007년 여름이 벌써 14년 전이다. 한국방문 중 큰 딸의 돌잔치를 가족들과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미국에 돌아온 여름에 시카고에서 켄터

키로 이사했다.

켄터키라는 지명조차 유명한 치킨 프랜차이즈 상호로 밖에 모르던 나에게 애즈베리신학교의 환경은 너무 낯설고 힘들었다. 양옆 푸른 목장 길 1차선 도로를 운전해서 30분여를 꼬불꼬불 들어가야 나타나는 한적한 산속 작은 마을 일모어에 위치한 학교는 흡사 수도원 같았다. 정말 공부 외에는 다른 것은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는 환경이었다.

둘이 갓 지난 딸과 우리부부는 학교 내 가족 기숙사에 살면

서 다른 한인유학생 목회자 가정들과 함께 모두 비슷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지냈다. 동양인도 너무 없고 이해도 부족한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다. 결혼 전에는 내 나이 또래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데, 아이를 낳으니 자연스럽게 아이 친구 엄마들과 각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친구가 되었다.

특히 기숙사 아래층에 사는 같은 감리교단 목사님 사모님과 각자 딸 한명씩에 나이가 같고, 또 관심사와 비슷한 공통점이 많아 우리는 매우 가까워졌다. 사모님은 나보다 다섯 살 어리셨지만 먼저 이곳에 생활하고 계셨고 밝고 친절한 성격과 새로운 육아정보를 많이 알고 계셔서 나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되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스토리타임도 같이 다니고, 혼자라면 업무도 못 봤을 50분씩 걸리는 렉싱턴 다운타운 아이들 집보리 클래스도 번갈아 카롤로 함께 다니며, 무료한 일상에 열심히 하루하루 채우며 엄마들도

아이들도 재밌게 지냈다. 고만고만한 유학생 형편에 크게 낙낙하지 못했던 우리는 차에 아이들 간식과 우리가 마실 음료수도 집에서 갖고 다녔다.

어느 날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월마트 앞에 스타벅스가 새로 건물을 짓고 있었고, 우리는 지나다니며 공사하는 것을 보고 오후라면 꼭 가서 커피를 사먹자고 했다. 유학 오기 전에 한국에서 편하고 흔하게 마시던 브랜드커피가 유학생생활에서는 큰 사치로 느껴지고 이제 가까운 곳에 지점도 없다보니 마실 기회도 줄었다.

높고 파란 가을 하늘과 사랑거리의 바람, 나뭇잎의 색들이 한참 예쁘게 느껴지던 어느 날 드디어 오픈한 그곳에 갔다. 아메리카노, 모카, 라떼, 프라푸치노 등만 알던 우리에게 가을과 겨울 스페셜 시즈널 메뉴인 '펌킨 스파이스 라떼'라는 새로운 메뉴가 보였다.

우리는 어떤 맛인지 궁금하다며 같이 주문했고, 바리스타는 '베스트 초이스'라고 하더니 능

숙하게 단호박 냄새가 나는 달콤하고 구수한 하얀 우유 거품을 올린 커피에 시나몬 가루로 톡톡 마무리하여 건네주었다. 뜨거운 커피를 조심스레 입에 대니 가을(?)을 듬뿍 담아 마시는 기분이 들었다.

모든 것이 감사했다. 마음을 나누는 좋은 사람, 가을 나무향이 느껴지는 시원한 바람, 알록달록 예쁜 나뭇잎, 깊은 펌킨과 시나몬 향의 달콤한 커피....

그 순간 낯선 곳에서의 외로운 유학생생활도 육아의 힘들어도 한국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도 다 사라지게 만드는 따뜻한 위로의 한 모금의 시간이 되었다. 우리는 그 후 가끔 타운에 다녀올 때 마다 서로가 "오늘 커피는 제가 살게요" 하며 함께 커피를 마시며 가을과 겨울을 보냈다.

이제 그때 함께 유학생생활을 했던 목사님 가정들은 학업이 끝난 후 한국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우리처럼 미국에서 한인 교회, 미국교회 사역을 하고 계시다. 어느덧 시간이 꽤 흘러 연락이 끊어진 가정도 많지만 한

계 커피타임을 나는 사모님은 버지니아와 신시내티로 떨어져 지낼 뿐 지금도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로 기도의 동역자로 계속 연락하며 교제하고 있다.

유난히 덥고 습한 여름이 지나갔다. 마지막 비가 온 후에 거짓말처럼 계절은 가을이 되었다. 혹시 태풍에 서로 비파해가 없는 지 안부전화를 나누고 피해가 없음을 감사하며 통화를 마무리 하는데. 수화기 넘어 밝고 유쾌한 목소리로 "사모님! 이제 펌킨 스파이스 라떼 나오기 시작했어요. 빨리 같이 마시러 가요!" 하신다. 나도 "좋아요! 빨리 주차장으로 내려주세요" 하며 함께 웃고 전화를 끊는다.

구수하고 씹사름한 커피에 그리움까지 담는다. 아들 픽업하기 전에 오랜만에 한잔 마셔야겠다. "Can I order one tall pumpkin spice latte?"

songjeu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국교회 예배의 9가지 변화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듀크대학교 NCS의 1998년, 2006년, 2012년, 2018년 등 4번의 조사 결과를 통해 20년 동안 미국교회의 예배가 변했다고 보도했다.



20년 전인 1998년은 넷플릭스가 시작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인터넷이 아니라 DVD를 우편으로만 제공하던 시기였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교회 예배의 9가지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중사이트 활성화다. 조사 첫해인 2012년 교회의 3.4%가 한 곳 이상에서 매주 예배를 드렸고, 교인의 10.3%가 참여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10.6% 교회가 여러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고 미국 교인의 17%가 예배에 참가했다.

둘째, 주중 예배의 감소다. 1주에 두 번 이상 예배를 드린다고 응답한 교회의 비율은 1998년 72.8%에서 2018년 60.5%로 감소했다. 반면 매주 한 번만 예배드린다고 응답한 교회의 비율은 26.6%에서 38.3%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8 라이프웨이 리서치 연구에 따르면 개신교 목회자 10명 중 9명이 수요일 밤 교회에 활동이 있다고 답해 주중 예배 감소는 비개신교 교회 때문일 수도 있다.

셋째, 예배들 간의 주요 차이점이 감소했다. 2006년에는 주일에 여러 번 예배하는 교회들의 거의 절반(47.9%)이 예배들 사이에 음악 스타일과 같은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36.2%가 그렇다고 답했다. 2018년 조사에서는 개신교 목사의 15%만이 예배에서 교인들의 다양한 음악 취향에 따라 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넷째, 덜 전통적 형태 예배로 변화했다. 1998년 미국교회의 53.9%가 예배에서 합창을 했고, 53%가 오르간을 사용했다. 하지만 현재 41.9%만 합창단이 서고, 46.8%만이 오르간 음악을 사용한다. 한편 드럼 사용은 90년대 후반 19.9%에서 오늘날 40.8%로 증가했다. 특히 개신교회에서 경배와찬양팀(52%)이 합창단(33%)보다 더 많다.

다섯째, 다중언어예배가 증가했다. 2006년에는 6.3%의 교회가 히스패닉 또는 이중언어 예배를 드렸지만 2018년에는 10%로 나타났다.

여섯째, 강단의 인종 다양성이 확대됐다. 1998년에는 4개 교회 중 3개 이상(76.9%)의 교회에 백인 목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64.6%로 감소했다. 반면 히스패닉 목회자의 비율은 1.8%에서 5.2%로 증가했다.

일곱째, 예배인도자의 나이가 더 많아졌다. 담임목사의 평균연령은 1998년 49세에서 오늘날 57세로 높아졌다.

여덟째, 더 표현적인 예배가 됐다. 예배에서 손을 들어 찬양하는 것을 1998년 44.6%에서 지금은 62.7%로 나타났다. 또한 요즘은 예배에서 뛰거나 소리 지르거나 춤을 추며 예배를 드리는 비율이 27.9%지만 1998년에는 19.2%의 회중만이 그랬다.

아홉째, 더 많은 기술을 사용한다. 종이 주보 사용은 1998년 72%에서 현재 66%로 감소한 반면 프로젝터를 이용해 예배순서 그리고 광고나 찬양 가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11.9%에서 46%로 증가했다.

미법원 "코로나방역 행정명령, 종교자유 침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가 코로나 19 방역을 이유로 교회 예배를 제한했다가 40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LA 선밸리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존 맥아더 목사)는 지난해 8월 3400석 예배당에서 수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내 예배를 드렸다. LA 카운티는 교회에 일일 비율 이상의 인원이 모이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교회는 지키지 않았다.

이후 LA 카운티는 교회가 카운티의 '건강 질서'를 위반했다며 명령위반으로 예배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교회도 이에 맞서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공무원을 상대로 예배를 제한한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복음주의교회의 원로로 손꼽히는 맥아더목사는 CNN과 인터뷰에서 "교회의 문을 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교회"라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적, 영적 건강에 대해 성인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인터뷰에선 "정부가 기독교인을 통제하기 위해 계약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대법원은 최근 카운티의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합의 결정을 내렸다. 합의안은 카운티와 주정부가 교회 측에 변호사 비용으로 각각 4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맥아더목사는 합의결정 이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교회는 건물만 뜻하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진리를 알리기 위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교회의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LA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31일 교회에 40만 달러의 법률비용을 지급하는 화해계약 승인을 두고 표결을 한다. 승인이 나면 비용은 카운티 보건부 예산으로 지급한다.

위기의 바이든...트럼프에게 추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차기 대선을 가정한 양자 대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가면 민주당도 바이든을 '손절'할 태세다.



에머슨칼리지는 지난달 30일-이달 1일 전국 여론조사 결과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뽑겠다는 사람이 47%로 바이든(46%)보다 약간 우세했다고 4일 전했다. 두 사람이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 최종 후보로 맞붙는 상황을 가정한 조사다.

격차가 오차범위(±2.7% 포인트) 안에 있는 만큼 트럼프의 승리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수세에 몰린 바이든의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뉴스위크는 "트럼프는 바이든을 물리칠 기회가 있다고 보이는 유일한 잠재적 공화당 후보"라고 해석했다. 실제 공화당 후보로 마스크 착용 반대론자인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주지사가 나서는 경우 48% 대 36%로 바이든이 우세했다. 밋 롭니

상원의원과 대결에서 바이든은 더 큰 차이인 42% 대 23%로 앞섰다.

눈에 띄는 건 바이든에 대한 민주당 내 지지율이다. 민주당 유권자 중 바이든을 차기 대선 후보로 밀겠다는 응답자는 60%였다. 공화당 내 트럼프 선호도는 67%로 바이든보다 높았다.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올해 6월 30일 50%였던 바이든 지지율이 이달 1일 4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 집계에서 바이든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긍정이 45.2%로 부정(49.3%)보다 4% 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취임 이후 최악의 평가다. 취임 초인 올해 1-2월에는 긍정이 부정보다 20% 포인트가량 높았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측근들에게 재출마를 계속 제안받는 데다 본인 역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美, 주당 600달러 실업수당 종료

미국 연방 실업수당 혜택 종료로 앞두고 근로자들이 향후 일자리를 찾아 나설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용 이후 1년반 동안 혜택을 받아 온 이들이 구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실업을 유지한 채 허리띠를 졸라매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경제방송 CNBC는 4일 "수백만명에 대한 연방 실업수당 혜택이 이번 주말로 종료된다"며 "많은 사람이 이후 닥쳐올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샌주리재단은 미국 노동절인 이달 6일부터 900만명이 실업수당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생후 2개월 딸을 키우는 라스베이거스 거주자 미스티 토드(37)는 주말이 지나면 집세와 식료품, 생필품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고 CNBC는 전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전편의점에서 일하던 그는 지난해 일자리를 잃은 뒤 실업수당으로 각종 청구서를 해결해 왔다. 마찬가지로 실업수당 혜택을 잃게 되는 배릭 존스(42)는 "우리는 실업 상태로 생존 중이었다"며 "나는 직업도 없고 집세도 뭉든 지불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미국은 지난해 3월부터 주로 자영업자, 임시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처럼 주정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을 지급했다. 의회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지원금을 주당 300달러로 줄이기는 했지만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정책을 1년6개월간 유지했다.

그동안 일부 경제학자는 실업수당 혜택 때문에 근로자가 구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혜택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다른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실업수당을 너무 빨리 중단하면 경제 회복이 더 느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콜롬비아대와 하버드대 등에 소속된 연구원들은 지난 6월 연방 실업수당 혜택이 종료된 뒤 실업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주에서보다 구직에 나설 가능성이 더 컸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주 실업수당 수혜자 8명 중 약 7명은 8월 초까지 여전히 재취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체 가계 지출은 약 20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CNBC는 "멀타 변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구직 능력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실업수당

혜택이 종료되면 일부 근로자는 부업을 찾아 나설 수 있지만 가계가 지출을 줄이면 경제에 흡입을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흡연·음주보다 대기오염 치명적

흡연이나 음주, 마약보다 대기오염이 수명에 더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CNN은 1일 시카고대 에너지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대기오염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연구소는 대기질생명지수(WHO가 정한 대기 기준에 예상되는 수명 손실 정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대기오염으로 인류 평균 수명이 74세에서 72세로 약 2년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수명에 치명적인 요소인 직접 흡연(1.6년), 음주 및 마약(11개월), 에이즈(4개월), 전쟁의 여파(22일)보다 더 위험적인 수치다.

WHO는 초미세먼지 노출량을 평균 10µg/m³ 아래로 유지하도록 권고한다. 하지만 측정 결과 전 세계 인구는 WHO 기준의 3배가 넘는 평균 32µg/m³의 초미세먼지를 흡입하고 있었다.

특히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지수가 가장 높은 인도(70µg/m³)는 주민들 평균 수명이 5.9년 단축될 것이라 분석이 나왔다.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북부 인도에서는 최대 106.6µg/m³의 대기오염지수가 측정됐다. 연구진은 만약 이런 오염 수치가 계속된다면 최대 9년의 수명이 단축된다고 전망했다.

평균 수명이 가장 많이 단축되는 나라 상위 5개국 중 인도(5.9년)에 이어 방글라데시(5.4년), 네팔(5년), 파키스탄(3.9년), 싱가포르(3.8) 순으로 모두 아시아 국가였다. 연구진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기후 변화와 화석 연료 배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세계 각국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을 급히 시행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뉴욕이 잠겼다...최소 45명 사망

허리케인 아이다가 뉴욕 등 미국 북동부 주거지를 강타해 최소 45명이 사망했다. 시간당 강수량이 워낙 많아 물이 불과 수 시간 만에 거기에 잠겼다. 워낙 많은 비가 급격히 쏟아진 탓에 지하철과 거리는 물론 아파트 지하실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고, 미처 피하지 못한 시민들의 피해가 컸다.



아이다는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주를 강타했다. 뉴욕에서만 최소 14명이 숨졌다. 퀸즈와 브루클린의 아파트 지하실에서 1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월세가 높은 지역이어서 아파트 지하를 불법 개조해 숙소로 사용한 곳이 많았는데, 이들 거주민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한 목격자는 "폭우가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거리를 범람했다. 자동차가 홍수에 아파트 지하벽을 부수고 다가구 주택에 충돌해 파도를 만들었다"고 CBS에 말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빨리 대피하라고 알렸지만, 물이 너무 빨리 들어왔고, 수압이 강력해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에서만 사망자 3명이 나왔다.

CNN은 뉴욕주 인근 뉴저지에서 최소 2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패서익강이 범람해 1명이 숨졌고, 뉴저지 남부 도시 엘리자베스의 아파트에서 사망자 5명이 나왔다. 실종자 수색을 지속하고 있어 사망자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를 사모한다.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 안에 거한다. 은혜 생활을 한다. 은혜를 나눈다." 은혜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접하는 단어다. 큰 은혜, 폭포수와 같은 은혜, 감동과 은혜, 한없는 은혜, 값진 은혜 등과 같이 어떤 수식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표현되기도 한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 경험이 있는 성도들은 매우 친근한 단어인 은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이 베풀어주시는 선물이란 것이다. 믿음이 대단하거나 남다른 열정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상으로 은혜를 공급받겠다는 의미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에도 은혜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국 교회 성도들은 얼마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복음서가 열창하며, 지으신 것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언한 바울의 신앙고백에 동참하고 있다. 은혜와 연관된 성경 말씀을 접하거나 찬양을 부를 때에 실로 마음에 큰 감동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은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은혜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이라곤 것 정도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더군다나 사용하지 않아야 할 때에도 문맥과 상관없이 오용되고 있기에 더욱 혼동이 야기된 듯하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특정한 오류를 드러내지 말고 용납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은혜로 모든 것을 덮는다는 은혜로 그냥 지나간다고 표현할 때이다. 여기서 은혜가 무엇인지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지만 실상 각자 전혀 다른 이해를 하고 있을 것임에 분명하다. 또한 이런 식의 표현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듯하다.

예배를 통해

은혜는 예배와 연관되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듯하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임한다. 예배당 안내위원을 맡거나,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를 하거나, 특별 찬양을 맡은 자는 자신들의 섬김으로 더욱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한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로 설교시간은 성도들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예배의 중심시간이다. 성례와 함께 은혜의 방편이라 정의하여온 것이다. 아무쪼록 예배는 은혜 일색이다. 교회지

도자들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럼에도 일부 성도들 중에 예배를 통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마음의 불편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지만 실상 제3자의 입장에서 서서 때론 여부를 평가하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참석한 교회의 예배에 은혜가 없었다. 찬양대원들 목소리가 뒤죽박죽 별 은혜가 없었다. 준비가 덜 되었는지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없었다. 악기연주 소리가 지나치게 커서 찬양시간에 전혀 은혜 되지 않았다."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다 할 것인지 살피고 반성하고 필요에 따라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은혜란?

예배를 마치고 설교자와 인사를 할 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은혜를 받았다?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시 설교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일까? 대단히 감동적이었다는 표현일까? 은혜를 특별한 느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은혜를 체험하면 '감동'을 받게 되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감정의 변화 자체가 은혜는

약들이 등장한다. 이는 모두 향후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었고 그가 정하신 시간에 이뤄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한 구원은 인간 범주 밖에서 이뤄진 일이기 때문이다.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여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무능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되는 이유가 바로 여

이루셨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죄인인 '의롭다' 선언하신다. 부패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패성이 사라지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해도 인간의 부패성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의를 근거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베풀어주시는 것이다. 십자가는 죄인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형용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

언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가장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분명히 인식할 때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만한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깨달을 때이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씻어주셨지만 언제든지 악한 생각과 행동이 가능한 부패한 인간이란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이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중세로마 가톨릭교회를 대항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범주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중세교회는 고행과 면죄부 등 인간의 노력으로도 가능하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독자 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간 스스로 얻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을까? 인간의 전적부패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은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 사상을 가르쳤다. 은혜는 한 성도의 판단기준 또는 감성에 의해 좌우될 성격이 아니다. 후시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경험이 있으나 현재 영적으로 무너져있다고 판단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청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확실 이상이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변함없이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 간혹 우리의 판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지 않으신다고 단정할 때가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 자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지닌 성도는, 하나님께서 숨 쉬는 순간마다 범사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삶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든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covenantcho@yahoo.com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42)

부제: 교회가 가르친다!(28) - 은혜 증후군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예배와 연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은혜' 인간적 가치로 표현 말아야 가장 분명한 '은혜' 경험은 자신이 추한 죄인임을 분명히 인식할 때

만일 독자 중에 이런 생각을 했거나 말한 적이 있다면 특정 예배행위와 자신의 관점에서 은혜를 연결시켜 평가하려는 시도였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만일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혹시 자신이 진정 예배를 사모하였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함께 참석한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자신은 타인의 경험에 동참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냉철하게 고민해보아야 한다. 특히 은혜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면 누구든지 주관적으로 은혜의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의 고위사역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물론 예배순서를 맡은 자들이 준비가 부족하거나 어설피서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는 경우도 있다. 대중기도의 내용이 물의를 일으킬만한 엉뚱한 내용이거나 찬양대가 괴로울 정도로 불협화음을 내거나 설교자가 게으르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나누려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 예배순서를 맡은 자나 참석하는 모든 자들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간다는 낮은 자세와

아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이다.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을 인간의 판단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은혜가 된다고, 생긴다. 사라진다... 등의 표현에 익숙해져 있다면 은혜를 인간적 가치로 표현하는 것도 중단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은혜는 성경용어이다. 구약이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신약은 은혜에 관한 것이라고 성경을 대조적으로 이해하려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기록된 책이다.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다. 성도들이 은혜에 대해 빠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한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이다. 그는 불순종한 아담의 범죄이후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구약에 여러 언

기에 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십자가

십자가를 목상할 때 주로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매를 맞고 찢기신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까지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면 울컥해지는 경험할 수도 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와 같이 생생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장면을 중심으로 제작된 영화를 관람하는 성도들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성도들의 십자가 목상이 단순한 감정에 머물러 있기도 하다. 한 걸음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셨기에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허락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죄의 삯은 사망이기에 아담의 후손은 모두 하나님께 내리시는 죽음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었다. 이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의를 상실하였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순종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915-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cebook.com/jeres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1:20 영아(영소): 오전 9:30 새벽기도: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전 2:30 Tel: (213)559-7728 (전환 번호 없음),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찬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영양)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6:00(토) 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 9071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령인양예배: 오전 9:15, 11:30 달이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엘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가족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감리교회와 합동목회) 성서연구 (월~금) 오찬(토) 수요일(토) 4:00PM 사역대상: 1. 여학생자녀 2. 교회 청소년 대상(미대) 3. 가정사역(미대) 4. 영혼사역 5. 네트워킹 사역 http://www.elpis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온오프 Tel: (714)446-8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령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금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 오전 6:00(토) Tel: (714)749-4500, www.gccj.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rsstonev.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 M 예배: 오전 9:45(10월)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여성경이 임하여'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성 품 칼 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인생의 마지막 5분

도스토옙스키(Dostoevskii)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그에게 마지막 5분이 주어졌습니다. 사형수는 5분 동안 마지막 유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잠깐 동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형수에게 한 마디씩 작별 인사하는데 2분, 오늘까지 살아온 생활을 정리해 보는데 2분, 나머지 1분은 대지를, 산과 자연을 둘러보는데 써야겠다.’

눈에 고인 눈물을 삼키면서 작별인사를 하고 가족들을 잠깐 생각하는데 벌써 2분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돌이켜 보려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분 후면 내 인생도 끝나구나.’ 갑자기 그는 지난 28년이란 세월을 아껴 쓰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살 수 있다면 순간순간을 아껴서 쓰련만. 이제 마지막 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형 집행자가 총대에 탄환을 장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 갑자기 한 병사가 흰 수건을 흔들면서 사형장으로 말을 타고 달려왔습니다. 특사는 놀라운 왕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에게 사형 대신에 시베리아로 유배시키라는 명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날 이후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뜻 깊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유배지에서 자신의 시간을 아끼면서 주옥같은 명작들을 집필했습니다.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같은 불후의 명작들을 남기는 후회 없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5분이 남게 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인생은 5분의 연속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에베소서 5:16)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 다음세대가 세월을 아끼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능력(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마지막 5분이 남아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 하시겠습니까?

goodtreeusa@gmail.com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39)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개혁신앙 목회자(The Reformed Pastor)” (9)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렌제일교회)



제 7장 맡겨진 양떼들에게 개 인적으로 교리의 교훈을 가르쳐 야 할 의무

그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의무를 성실히 행할 것을 권면한다. 그 의무란 자신의 교구에 속한 혹은 속하게 될 각 사람에게 교리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지도하는 것이다. 이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로 첫 번째 이유는 이를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어렵기 때문이요, 세 번째 이유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 사역의 유익 면에서

이는 단지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효과적인 목회방법일 뿐이다. 고대의 목회사역을 복원한 것에

수 있다. 물론 깨달음이 없으면 말씀 그 자체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어려운 라틴어 대신 쉬운 영어로 전달되는 말씀은 한결 뜻을 이해하기가 쉽다.

“바른 말”(딤후1:13)은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결코 무익하지 않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매우 쓸모가 있다. 우리는 개별 면담을 통하여 사람들이 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들에게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다. 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에게 이를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 속에 진리를 깊이 심을 수 있는 최상의 기회도 갖게 된다. 그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그대의 “영광이요 기쁨”이다(살전2:19-20).

3)설교-이 일은 우리들의 공중 설교를 더 잘 이해하게 하고 설교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이를 행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대중설교를 더 잘 이해하고 거기에 관심을 둘 것이다. 우리가 양떼들에게 기독교의 원칙들을 가르치면 저들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더 잘 이해할 것이다. 교리 공부의 양들의 생각을 준비시키고 마음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반면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것이 될 수도 있다. 대중들 앞에서 헛수고를 하지 않으려면 이 개별적 일을 충실히 행해야 한다.

4)친숙관계-이 일을 하면서 우리는 성도들과 더 친해질 것이며 따라서 그 사랑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양들과 한결 친숙해

힘에 대해 저들을 보호해야 할지도 알게 된다.

6)성찬 시행 분별력-이와 같은 노력과 성도들의 상태에 대한 지식은 그들에게 성찬을 베풀어도 좋을지에 관하여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양들의 상태를 숙지함으로써 우리는 저들을 성찬식에 참여시키는 문제를 결정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교육을 통해 우리는 거의 예외 없이 그 사람의 자격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그 어떤 부분적인 체크 방법보다 이 방법은 훨씬 더 효과적이다.

7)목회본질 상기-이 일은 사람들에게 목회의 참다운 본질에 대해 알려주며 그것에 대해 잘 숙고해보도록 그들을 일깨운다.

목회자의 의무는 교인에게 교리교육을 시키고 지도하는 것
목회본질은 교인의 영적상태 등 개인적으로 돌볼 책임있어

불과하다. 그리스도의 참 사역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그의 사역 목적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또 다른 소망이 나타났다는 데 대해 크게 기뻐할 것이다.

1)회심-이 의무는 영혼들을 회심시키는데 대단히 소망스러운 방법이 된다.

①내용: 이 의무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필요한 핵심 혹은 원칙 혹은 본질에 관한 것이다.

②방식: 이 일은 개인적 면담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마음과 양심이 모두 편안한 때에 잡아 행해진다. 회심이 일어나려면 다음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첫째는 신앙의 기본원칙들을 알아야 한다. 둘째로 진리의 영향을 받아 의지가 변화해야 한다. 우리가 행하려는 일은 그 두 가지 면에서 탁월한 효력을 가진다. 우선 종교적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 이 일은 기독교의 모든 핵심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심어줄

2)양육-이 일은 회심한 사람들을 신앙 안에서 질서 있게 양육하고 견고히 되도록 촉진시킬 것이다

이 일은 이미 회심한 자들의 덕을 높이고 그들을 믿음 안에 굳게 세울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을 적절한 시기에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회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적어도 큰 장애를 겪게 될 것이다. 기독교 진리의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 의존하고 있다. 첫 번째 진리를 배우지 않고는 두 번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수고가 헛것이 되어버린다.

그들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딤후 3:7) 것은 철자법을 익히기도 전에 책을 읽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시험의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신앙의 기초가 잘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기초가 든든해야 사람들은 다음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

지고 저들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행하지 않으면 큰 교회의 목회자들은 성공에 많은 장애를 겪게 될 것이다. 거리감과 소외감으로 인해 목회자와 교인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반면에 친밀감은 그들 사이에 사랑을 낳고 마음의 문을 열어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할 것이다. 목회자와 양들이 친해지면 양들은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듣고 또 의문점들을 마음 놓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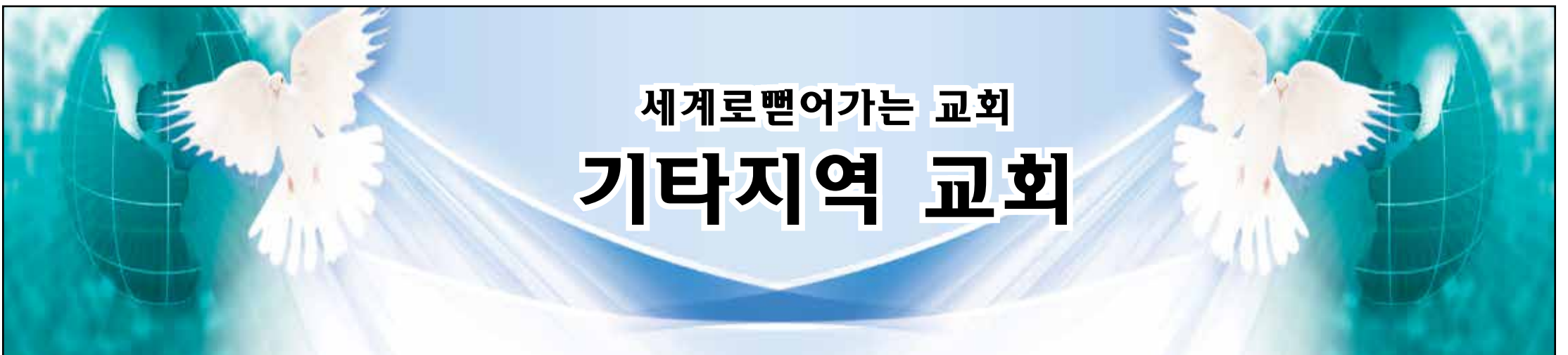
5)영적 상태 파악-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개개인의 영적상태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을 감독하는 법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될 것이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각 사람의 영적상태를 더 잘 알게 되고 어떻게 저들을 보살피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양들의 기질과 성향을 알게 되면 저들에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으며 어떤 시

이 일은 사람들에게 목회사역의 참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주기에 대해 더욱 숙고하게 만들 것이다. 사람들이 이 개인적인 보살핌을 어려워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대개 이 일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만간 양들을 개인적으로 돌보지 않는 목회자들은 그 태만으로 인해 망신당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저들도 설교 못지않게 이 일을 중요시하게 될 것이다.

목회자에게는 양들을 개인적으로 돌볼 책임이 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함으로써 세상에 이를 알리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만 해서 잘 듣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적 교육을 보편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우리의 행위는 더 큰 죄라 할 수 있다.

hyojungyoo2@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 예배: 오전 11:30 주일 그룹 교제 및 기도회: 오후 1:00 주일 학교: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성경공부기도회: 수요일 밤 8:00 다민족 찬양 연주: 매주 목요일 오후 4:00-7:00</p> <p>Tel. (773)902-1112 estcros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키온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양 회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Winterton, MA 01748</p>
<p>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p> <p>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p>	<p>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www.je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제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회: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Levittown, PA 19044</p>	<p>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p> <p>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p> <p>Tel. (253)536-6675, www.tacomacr.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p>



목회서신



강인국 목사 (미시안나한인교회)

예수의 행복론 5-역설 속에 빛나는 행복

역설이란 말은 서로 모순적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심오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성경에는 역설의 진리가 많이 담겨있고, 예수님께서 설파하신 행복론에는 역설의 진리가 가득하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

씀하신다. 사람들은 즐겁고 웃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슬퍼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은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신다.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 사실 사람의 눈에는 복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복이 아닌 것이 많다. 사람들은 물질이 많으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물질이 많아져 불화를 자초하는 경우도 많다. 한 부자 집의 아들은 아버지가 사준 비싼 스포츠카를 친구들과 함께 타고 스피드를 즐기다가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다. 아버지가 자동차를 사줄 정도로

부자가 아니었으면 그 아들은 장성하여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았을 지도 모른다.

한국 소설문학 중에 계몽주의 '백치 아다다'란 소설이 있다. 여주인공은 병어리에 지능도 낮다. 그 여인은 할 줄 아는 말이 '아다다' 밖에 없었다. 아다다는 장성하여서 한 가난한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 둘은 서로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상당히 모았다. 돈이 많아지자, 남편은 병어리 아다다를 두고 한 신식 여자를 집으로 데려온다. 아다다는 그 돈 때문에 남편의 마음이 변한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아다다는 집에 있는 모든 돈을 들고 나가서 강물에 뿌려버렸다. 사실이 비슷한 내용이 사람들의 실제의 삶에 너무 많이 일어난다.

또, 그와 반대되는 일도 많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은 일찍 철이 든다는 통계가 있다. 어릴 때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고 시련과 눈물을 경험한 사람들이 입지적인 사람으로 역사에 남는 사람들이 많다.

다윗은 어릴 때 가족으로부터 무시당했고, 젊어서는 사울 왕으로부터 온갖 시련을 겪으며 죽음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는 살아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강구하였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다윗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위대한 성군이 되었다.

사람은 가난을 통해서 성실을 배우고 슬픔을 통해서 삶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아픔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된다. 사람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알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난한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가득한 삶이 행복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주님께서는 참된 행복은 눈앞에 보이는 어떤 중간 결과물이 아니라 먼 훗날 뒤에 닥쳐오는 마지막 결과물까지 보시면서 말씀해주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의 생각과 다르고 역설적인 경우가 많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하였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였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시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믿을 때 어떤 순간에도 의연하고 행복할 수 있다.

dik0184@yahoo.com

세책소개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담임/생터성경사역원 지부장)

'The Way(그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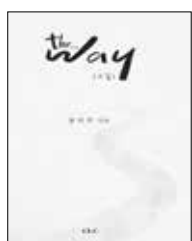
'어? 성경이 읽이지네!'(생터성경사역원) LA 지부장으로서 말씀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담임)가 'The Way(그 길)'를 출간했다.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 성경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The Way'는 성경 66권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재배치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이야기를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그려냈다. 역사서를 읽

는 중에 예언서, 혹은 서신서들을 발생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저자의 심정으로 읽을 수 있도록 생생한 성경의 현장 속으로 안내한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왜 '그 길(The Way)'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둘째로는 "성경에 길(The Way)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는다. 구약 39권의 목록은 장르별(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묶여 있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역사의 순서대로 다시 길을 내어 성경의 내용을 다루고 예언서가 발생한 시기에 예언서의 내용도 살피도록 꾸몄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신약 역시 역사서인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의 서신서, 예언서 요한계시록으로 돼있으

는 전체의 이야기를 한 눈에 볼 수 없으므로 역사 순으로 재배치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길(The Way)을 타고 안내한다"며 "이 책을 통해 드라마와 같이 흘러가는 성경의 이야기가 이해되고 그 이해됨을 통하여 성경이 읽히게 되는 거룩한 기쁨을 맛보길 바란다"고 출간 목적을 내비쳤다.

본서는 제1부 '구약', 제2부 '신약' '신구약 중간기', 제3부 '신약'

성경을 역사 순으로 재배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길' 안내

나 이런 순서로 성경을 읽으면 역사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며 "성경의 목록대로 성경을 읽으면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

으로 구분되어 각 성경 목록마다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되

(이성자 기자)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방광암

-70세 남성인 정 모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던 중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놀라서 병원을 찾아가던 정 씨는 우선 일주일간 항생제 치료를 받았는데 여전히 소변에서 피가 그치지 않았다. 그 후 비뇨기와 검진을 받은 정 씨는 방광암에 걸렸다는 진단

을 받고 수술 치료를 받았다.

방광은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요도관을 통해서 운반되어서 일시적으로 소변을 저장하는 주머니 같은 역할을 한다. 방광에 소변이 차게 되면 방광근육이 늘어나 소변이 보고 싶어지고 소변을 보고 나서

방광이 비게 되면 시원함을 느끼게 된다. 이 소변 주머니인 방광에도 암 조직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방광암은 미국 남성에서 네 번째로 흔하게 발병하는 암이고 여성에서는 아홉 번째로 흔하다. 발병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3배 흔하고, 주로 40대 이상, 특히 6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흔하다.

있으며, 고구나 화학약품 등을 취급하는 사람의 경우 방광암 발병률이 높다고 한다. 한때 문제가 된 식품첨가제인 사카린이 쥐에게 방광암을 유발한다는 연구가 있으며,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경우도 방광암 발병을 조금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또 방사선 치료나 특정 항암제도 방광암의 발생을 높인다. 최근에 방광암을 일으

킬 수 있는 유전자 이상이 발견되었지만 방광암은 환경적인 요인과 더 관련이 있어 보인다. 방광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혈뇨인데 한 통기에 따르면 소변에 피가 나오는 경우의 15% 정도가 방광암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혈뇨의 원인은 방광암 이외에도 요로 감염, 신장 결석, 운동이나 외상을 당한 후에도 나올 수 있고, 콩팥의 사구체 이상에 의해서도 혈뇨가 생길 수 있다. 방광암의 위치에 따라서 옆구리나 아랫배가 아플 수가 있고, 배뇨 장애를 일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하고 이유 없이 혈뇨의 소견이 보이면 정밀 비뇨기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방광암의 치료 원칙은 표피에 발생하는 표재성 방광암 superficial bladder cancer은 방광 내시경으로 긁어내서 치료를 하지만 침투성 방광암 invasive bladder cancer은 방광을 제거하는 수술cystectomy을 해야 한다. 전이성 방광암은 항암 치료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방광암은 흡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담배를 끊는 것이 중요하고 채소나 과일, 해조류, 기름기 없는 고기를 섭취하고, 커피 섭취를 줄여야 한다.

▲문의:213-383-9388

60세 이상의 남성에게 흔하게 발병

킬 수 있는 유전자 이상이 발견되었지만 방광암은 환경적인 요인과 더 관련이 있어 보인다. 방광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오킬 수 있다. 또 피곤함이나 체중 감소, 입맛이 없어지는 등 암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증상을 호소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지하디즘 ...

(2면에서 계속)

그는 "성경처럼 쿠란에도 가혹하고 아주 강한 구절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무슬림은 이러한 폭력적인 원칙들을 거부한다"며 "그들은 이슬람교 창시 초기 종교가 위협받았을 때는 이런 강경한 구절들이 유효했다고 말한다. '신성한 전쟁'이라는 뜻의 지하드도 당시에는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공통된 시각에도 불구하고 탈레반, 알카에다, IS는 그들의 목적에 따라 극단주의의 강도가 다르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세 집단 사이의 주요한 차이라고 설명한다. 탈레반의 관심은 아프간에 있는 반면, 알카에다와 IS는 세계적인 야욕을 품고 있다.

탈레반이 1990년대 아프간에서 샤리아법을 시행했을 때, 여성에 대한 엄격한 법을 적용한 것은 물론 공개처형, 채찍질, 신체 절단 등 가혹한 처벌을 집행했다. 탈레반의 제정권 후 아프간인들은 이러한 역사가 반복될

것을 두려워하며 대규모 탈출을 시도했다.

미 워싱턴 조지타운대학의 테러리즘 및 중동 전문가인 대니얼 바이먼은 알카에다와 IS의 교리는 더욱 급진적이라고 말했다.

바이먼은 BBC와 인터뷰에서 탈레반의 목적은 "과거 이상적이었던 무슬림 세계로 아프간을 복원하는 것"이지만, 다른 나라들까지 바꾸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바이먼은 알카에다와 IS 모두 세계적인 야욕을 갖고 있으며 칼리프를 창조하려고 하지만 두 집단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IS는 지금 칼리프를 만들고 싶어 하는 반면 알카에다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알카에다는 지하드공동체와 무슬림사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믿는다. 칼리프 창조는 알카에다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탈레반, 알카에다, IS는 멀고 또 가까운 적들을 공유한다. 첫 번째 적은 미국과 서구다. 또 미

국과 서구의 동맹국들, 그리고 정교분리를 받아들인 국가들이다.

바이먼은 "처음부터 IS는 알카에다보다 더 폭력적이었고, 서방과의 전쟁은 물론 자신들의 이념을 공유하지 않는 다른 무슬림들에 대해서 투쟁을 벌였다"고 말했다.

즉, 또 다른 점은 알카에다의 주적은 계속해서 미국이지만 IS는 중동의 시아파 공동체와 다른 소수 종교집단을 계속 공격한다는 점이다.

바이먼은 "알카에다는 시아파를 배교자로 여기면서도, 시아파들을 죽이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고 자원 낭비이다 '지하디스트' 프로젝트에 손해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그로피는 IS가 탈레반 정권을 미국과 철군을 협상한 "반역자"로 여기기 때문에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IS와의 분열이 더욱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IS는 제3의 그룹을 통해 탈레반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전문가들은 아프간의 IS 세력, 그리고 탈레반과 밀접하게 연계

된 무장단체 일명 '하카니' 네트워크 사이에 강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분석한다.

알카에다는 2001년 뉴욕의 세계무역센터를 공격한 9·11테러를 주도한 것으로 유명하다. 알카에다는 이렇게 강렬한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세계 곳곳의 무슬림 전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중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슬람 성지에서 미국 세력을 몰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알카에다는 '지하드'가 모든 무슬림의 의무라고 선전하는 동시에, 알카에다의 목표가 지역의 목표보다 우선한다고 강조한다. 바이먼은 IS가 이러한 관점을 "훨씬 폭력적인 접근법으로" 강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IS에게 테러는 혁명전의 일부"라며 "그들은 자신들이 지배 영역에서 대규모 처형, 공개 참수, 강간을 했다. 또한 지역 민들을 위협해 굴복시키려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모르지만 알카에다의 접근법은 이보다 다소 온화하다"고 설명했다.

IS는 2014-2017년 시리아와

이라크 내 영역을 크게 확장했지만 이후 서방과 쿠르드군, 러시아가 지원한 시리아군에 빼앗겼다.

IS는 2019년 4월 시리아에서 마지막 영토를 잃었다고 선언했지만 이후 비밀 네트워크로 진화했고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 있다. IS-K는 지난달 26일 카불 공항 바깥에서 170여 명이 사망한 테러 공격을 주도했다. 이들은 또한 아프간의 소수 민족들을 공격했다.

탈레반은 최근 몇 주간 아프간의 주요 도시들, 궁극적으로는 수도 카불을 점령하려는 전술을 펼치고 아프간 정부와 보안군을 공격했다.

많은 사람들은 탈레반 전사들이 아프간 군인들을 처형하고 특히 여성들에게 가혹한 처벌과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증언한다. 하지만 그로피는 탈레반이 지역 민들을 설득함으로써 발전했고,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부정부패를 포함해 아프간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제"라고 설명했다.

탈레반, 알카에다, IS는 모두

이러한 지역민들로부터 자신들의 명분을 위해 싸울 요원들을 모집할 수 있었다. 모집된 사람들은 지하드가 그들의 종교를 구하고 "정화"할 것이라고 약속함으로써 조직의 전사가 된다.

알카에다와 IS는 세계적인 야욕을 갖고 중동 국경 너머 사람들을 모집하는 데 성공했다. 그로피는 IS가 이라크와 시리아 내 자기들의 영토로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의 힘을 이용해 "국경 밖 주민을 모으는 데 가장 성공했다"고 말했다.

바이먼은 "IS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서구에 있어 IS와 거의 접촉이 없었고 시리아나 이라크에 갈 수 없었던 사람들도 동원했다. 그들은 서구 현지에서 공격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2015년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도 그중 하나였다. 당시 IS 무장 세력의 무차별 총격과 자살폭탄 테러로 130명이 숨진 이 사건은 프랑스에서 수십 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테러로 꼽힌다.

동부교계 기사판

“다음세대가 건널 때까지 돌파하라”

뉴저지장로연합회 제7회 영적대각성기도회, 설교 김성국 목사



뉴저지장로연합회 제7회 영적대각성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다. 우리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며 경계를 넘었다. 우리가 미국에 온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국 목사는 “지도자들이 경험에 안주하지 말고 말씀을 앞세우고 한 마음으로 생명 걸고 십자가의 결단으로 담대하고 지혜롭게 돌파하라”고 말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합심기

도를 인도했다. 설교후 회장 정일권 장로는 “오늘 말씀에 많은 도전을 받았다”며 “에스더와 느헤미야처럼 다음세대에게 리더십을 전

회장, 부회장(목사, 평신도), 감사

뉴욕교협 선관위 제48회기 선거일정 발표

뉴욕교회협의회(회장 문석호 목사)가 9월 3일 선관위원회(위원장 이만호 목사)를 통해 제48회기 정부회장 및 감사 선거 일정을 발표했다.

등록기간은 9월 20일(월)부터 24일(금) 오후 4시까지이며 교협 사무실에 접수하면 된다.

헌법 제 11조 회장과 부회장 임후보자 자격은 ①본 회 가입 5년 이상 되고 회비 체납이 없는 자 ②목사안수 받은 지 10년 이상 ③뉴욕에서 담임목회 만 5년 이상 ④본회의 임원 또는 실행위원 역임 ⑤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⑥출마는 3년 이내로 제한 ⑦헌 회장과 동일교단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임후보 할 수 없다

감사 임후보자는 제 1항, 4항, 5항에 준한다. 평신도 부회장은 이사회 이사장을 역임한 자를 상례로 한다. 이외에 임후

하며 돌파하는 제 2의 인생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장로연합회가 되자”고 말했다.

1부 예배는 정일권 장로 사회로 기도 김진수 장로(수석부회장), 성경봉독 안성주 장로(감사), 특별찬양 킷스라이어 남성중창단(퀸즈장로교회), 설교 김성국 목사, 헌금기도 김호진 장로, 헌금특송 뉴저지목사합창단, 광고 유클철 장로(총무), 축도 김성국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2부 기도회는 박종음 목사의 찬양인도 후 1. 회개기도/김거영 장로(서기), 2. 코로나19 종식, 아시안증오범죄, 여성혐오범죄의 종식과 뉴저지 각 교회와 교계의 영적 각성을 위하여/강애경 목사, 3. 뉴저지 교계 연합과 미국과 한국과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최관해 장로 순서로 기도가 진행됐으며 강영안 장로(부회장)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유원정 기자)

고강진 장로, 뉴욕나눔하우스 쉼터 구입 기금 전달

미주한인노숙인 쉼터 구입 기금을 모금 중인 나눔하우스(대표 박성원 목사)에 8월 25일 고강진 장로(뉴욕호신장로교회)가 후원금 1만 달러를 전달했다(오른쪽 사진).

(기사제공: 뉴욕나눔하우스)



뉴욕나눔의집 718.683.8884

뉴욕영락교회 헌당 감사예배

뉴욕영락교회(담임 최호섭 목사) 새 성전 헌당 감사예배가 9월 19일(주일) 오후 5시30분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새 주소는 65 East Williston Ave East Williston, NY 11581.

▲문의: (516)232-3705

어린이 세계관 학교 개학

낮은울타리 미주본부(대표간사 조희창 목사)가 주최하는 어린이 세계관 학교 'JESUS POWER ACADEMY' 2기가 줌화상으로 열린다. 9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월요일 미주동부시간 오후 7시30-8시50분까지 6주간 진행된다(미주서부시간 4시30분-5시50분). 대상은 1학년부부터 6학년까지,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되며 등록비는 60달러. 등록은 링크 <https://forms.gle/pShYoNij5d1PMySV6>를 클릭해서 작성한 후 등록비를 입금하면 된다.

▲문의: (646)300-4790, <http://www.wooltarius.org>

패밀리터치 20주년 기념 갈라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 20주년 기념 갈라가 10월 21일(화) 오후 6시 “Gratitude(감사)”라는 주제로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다.

▲문의: (201)242-4422



뉴욕실버선교회 선교학교 수료식 및 제32기 개강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자”

뉴욕실버선교회 선교학교 수료식 및 제32기 개강예배

뉴욕실버미션 산하 선교학교 수료식 및 제32기 개강예배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자”라는 주제로 8월 30일 오후 8시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열렸다.

매년 봄가를 2회에 걸쳐 진행되던 선교학교는 팬데믹으로 지난 31기 선교학교는 뉴저지와 공동으로 온라인 회상교육을 진행했다. 따라서 수료식을 하지 못해 이날 개강예배에서 30기와 31기 수료식을 겸했다.

30기 8명과 31기 17명에게 수료증을 증정했으며 30기 박요한 장로와 31기 강해명 전도사를 각 기 대표로 임명했다.

수료자들을 대표해 노재화 수료자가 인사했다. 노 수료자는 한국 성결대학교에서 28년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은퇴하고 뉴욕에 와 31기 실버선교회에 등록해 과정을 마쳤지만 32기에 다시 등록했다. 노재화 교수는 실버선교 헌신자들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등록생들에게 큰 도전을 줬다.

개강예배는 훈련원장 김경열 목사의 인도로 대표기도 최윤섭 목사, 성경봉독 문삼성 목사, 찬양 뉴욕장로성가단 아이노스 중창팀, 설교 최창섭 목사, 헌금기도 박요한 장로 순서로 진행됐다.

최창섭 목사(에베에셀선교회)는 “아름다운 노년”(수 14:10-12)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셨는지, 왜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귀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사역에 쓰임 받게 해주셨는지 하나하나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 감사라는 보석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가 계속 나타나는 삶을 살라”고 당부했다.

최 목사는 “노년에 편안한 삶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와 재능을 갖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귀한 일을 흔들리지 않고 진실하게 감당하라”고 말했다.

환영사 회장 김재열 목사, 축사 이지용 목사, 격려사 박헌영 목사, 축무 뉴욕필그림선교부용단, 축가 김영환 전도사, 광고 사무처장 이형근 장로, 축도 이사장 한재홍 목사 순서가 이어졌다.

뉴욕실버선교회를 18년 전에 설립한 회장 김재열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잠31:30 “고은 것도 거저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라는 말씀을 나누며 “진정 아름다운 것은 인생의 후반전에 복을

을 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열 목사는 “젊어서 무엇을 했던 막판에 끝을 놓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종반전에서 승리를 해야 영원한 승리자가 된다”며 실버선교회를 통해 선교지에서 노년을 영혼 구원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13 가정의 실버선교사들을 소개하며 도전했다. 이날 케냐 최홍훈 실버선교사가 참석했다.

32기 실버선교학교는 8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센트럴교회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단기선교는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예정돼 있다.

▲등록문의: 사무처장 이형근 장로(646-220-8222), 훈련원장 김경열 목사(917-963-9356)

(정리: 유원정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뉴욕제새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4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한국교회: 오전 9:30(토)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예배: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전 6:00 새벽기도: 오전 6:00 (화-토)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성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찬양대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전일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 전교인특별찬양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어린이 개혁 교회 담임목사: 유승래 EM 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예배: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0시30분 주일학교: 오후 4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맨큐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00(월-금) 오전 6:30(토) 금요보기도회: 화, 목, 금, 토 금요영양 기도회: 매월(제1주) 오후 7:3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토론토 가든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기도회: 저녁 7:30 수요예배: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빈곤층 선교사 2. 임마누엘 신학교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지난 디퍼런스 9차 공개세미나를 줌으로 진행하는 모습

생명과학에 속하는 새로운 통전적 신학문 제10차 디퍼런스 공개세미나 9월 25일

미국 디퍼런스연구소(본부장 오동희목사)주최 제 10차 디퍼런스 공개세미나가 9월 25일(토) 오후 2시 - 4시까지 온라인 실시간 줌 화상세미나로 열린다.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오동희목사는 본 세미나에 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디퍼런스학은 히포크라테스의 4체액설에 기초한 외부적 디퍼런스, 칼 융의 심리 유형론에 기초한 내부적 디퍼런스, 그리고 서무영 박사의 동인론에 기초한 핵심적 디퍼런스, 이 세 가지를 함께 복합적으로 연구하여 인간의 다양성의 원인을 영, 혼, 육 세 가지 전인적인 면에서 복합적으로 연구한 학문”이라며 “심리학과는 구별되고 상담학의 한 분야라기보다 상담의 기초를 제공하는 기초과학의 한 분야로 보아야 하며 성경적 토대위에서 연구된 학문이지만 기독교적 교리를 다루는 학문은 아니기에 디퍼런스학을 신학의 한 범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결론적으로 디퍼런스학이란 기초과학 분야 중 생명과학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통전적(전인적) 신학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오목사는 “디퍼런스학에서는 로마서 12장의 은사에 주목하고 있다”며 디퍼런스를 알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디퍼런스를 알면 먼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던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낮은 자존감이 회복된다. 둘째,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와 다르도 어떻게 다른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어 그를 받아들이는(acceptance) 수용성이 커지게 된다. 셋째, 부모와 자녀가 다를 뿐만 아니라 구체적

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부터 부모도 자녀도 불필요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받는 데서 벗어나게 된다. 넷째, 디퍼런스는 직장에서도 크게 적용된다. 직장의 H.R 담당자가 직원들의 디퍼런스를 알게 되면 각 직원들에게 알맞은 직장 부서를 배치함으로써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섯째, 전인 사역자들에게 디퍼런스는 사역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데 아주 유익하다. M.Div 과정을 공부하는 예비 사역자들은 졸업 후에 사역의 방향이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목회 사역, 가르침 사역, 상담 사역, 선교 사역, 특수 사역 등이다. 어떤 이에게는 목회 사역보다는 가르침이나 상담 사역이 적합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선교 사역이나 특수 사역이 적합 할 수 있다. 여섯째, 자신의 디퍼런스 강점과 약점을 알고 적용하게 될 때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디퍼런스 연구소 설립자인 서무영 박사는 인간의 다양성에 관해 30여년 간을 연구하며 미국 Yeshua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North West University, Houston Graduat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에서 공부하고 L.A 영광의빛교회(The Light of Glory Church)담임목사로 사역하다 2012년 3월 한국으로 재이주, 디퍼런스 사역에 전념하고 있다. 미국 디퍼런스 연구소는 2009년 7월 서무영 박사에게 의해 설립되어 현재 70여명의 전문가들이 사역하고 있다. 본 연구소와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562)822-3078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엘피스 가정사역원 사모님들과의 포럼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엘피스가정사역원 사모님들과의 포럼

엘피스가정사역원(원장 박운송 목사) 사모님들과의 포럼이 28일 오전 10시30분 엘피스패밀리룸에서 열렸다.

박운송 목사는 “나눔의 주제는 사모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며 “정체성을 2가지 의미로 보면 실존적 정체성(사회적 의미에서의 정체성(술어적 주체로서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사모님들은 하나님의 형상 즉 이마고 데이의 실존적 정체성은 잘 확립됐다. 그런데 사모다움과 나다움의 정체성 혼란으로 대부분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결론은 나다움을 찾아가면서 내가 즐거운 사역에 우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은주 사모의 찬양인도와 합심기도로 시작된 포럼은 이경민 간사가 기도했으며 김호용 목사(LA복음연합감리교회 담임)가 환영사를 했다.

김호용 목사는 “가정사역에

헌신하는 사모님들의 수고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다”라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눔의 시간 후에는 식사시간을 가졌으며 김은주 사모 인도로 티타임을 가진 후 마쳤다.

이날 사모들은 바쁜 사역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 모임을 사모해서 참석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사모 행전의 내용을 보며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엘피스가정사역원은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엘피스에서 하부르타 세미나를 비롯한 코칭세미나 성경세미나 등을 줌으로 9월말(9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 7-9시)부터 1회 ‘자연과의 대화’라는 1일 힐링캠프를 진행하게 된다.

▲문의: (213)700-9928

(박준호 기자)

‘성령의 불을 받자’ 주제

은혜한인교회 특별컨퍼런스 강사 필립만토파목사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특별 컨퍼런스가 ‘성령의 불을 받자’라는 주제로 3일부터 5일까지 열렸다. 3일 오후 8시에 열린 첫날 집회는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한기홍 목사 인도로 시작했다.

이번 집회는 5천개 교회를 세우고 백만명의 주의 백성을 세우는 데 비전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필립만토파 목사(인도네시아 마와사론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했다.

필립만토파 목사는 ‘성령님은 친구를 찾고 계십니까’(행 1:1-11)라는 제목으로 ‘성령님을 잘 안다 생각하지만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성령님은 정말 능력이 많고 좋으신 분이시다. 성령님을 찾아가라 때 겸손하고 간절한 소원이 되고 나갈 때 친숙하게 다가오신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친구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했다.

필립 목사는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역사를 자세히 기록한 책이다. 눈으로 보이지 않은 엄청난 귀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기록되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세우신다. 본인 스스로 이름으로 오르지 않았고 우리가 치료를 위해 안수할 때 성령의 이름이 아닌 예수이름으로 명한다고 기도한다. 예수님도 성령님을 높이 세우셨다. 성령님은 하나님이기 전에 하나님을 알리면 성령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100% 인간이셨고 100% 하나님이셨다”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해야 한다. 인간적 논리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의견대로 따르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주님의 영이시기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은혜한인교회 특별 컨퍼런스에서 필립만토파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한마음봉사회는 지난 27일 남가주밀알선교단에 장애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에 사용될 달라소정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한마음봉사회 남가주밀알선교단에 기부금 전달

친목과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인 한마음봉사회(회장 박미애)는 지난 8월 27일 산타페 스프링스에 위치한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에 장애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에 사용해 달라소정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박미애 회장은 “밀알선교단은 장애인 전도, 봉사, 장학복지사업 및 계몽을 목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는 미주한인사회 건설한 단체로, 장애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단체라고 사료된다”며 “한마음봉사회 회원들이 마음을 정성껏

모아 기부금을 마련했다. 유용하게 잘 사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종희 목사도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 각종 변이 바이러스로 더욱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음봉사회 박미애 회장과 이미섭 재무부를 포함한 모든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후원금을 전달해주심에 감사하다”며 “미주 한인사회에 귀감이 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새누리교회 제5회 언플러그드 컨퍼런스에서 마크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북가주지역 청년 부흥을 위해

새누리교회 제5회 언플러그드 컨퍼런스 열어

북가주 마운틴 뷰에 위치한 새누리교회(담임 손경일 목사)가 북가주지역 청년들의 부흥을 위한 제5회 ‘언플러그드 컨퍼런스’(Unplugged Conference)를 지난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The Holy Storm’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교파를 초월해 북가주 베이징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 강사로 초청된 마크 최 목사(뉴저지 온누리교회 담임)

는 “하나님께서 기록한 폭풍을 보내실 때 준비된 자는 그 폭풍을 맞아 서핑을 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는 쓰나미가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새누리교회 청년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는 이요한 목사는 “모든 청년들이 열정적인 마음으로 참가하여 삶에 큰 변화를 준 수련회였다”고 전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비전케어 미주서부 LA사랑의 아이캠프

국제의료구호단체 비전케어 미주서부(VCS West·이사장 고정원)가 무보험자 및 저소득층 한인들을 위해 9월 18일(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LA 한인타운내 월셔와 뉴햄프셔에 위치한 LA 총영사관 주차장에서 ‘LA 사랑의 아이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아이캠프는 눈질환이나 백내장이 있지만 경제적 형편으로 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이날 무료 안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진 결과 백내장 질환이 심각한 저소득층 또는 무보험자 한인에게에는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제공한다. 코로나 델타변이 확산으로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전 예약을 받는다. 예약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문의: (213)215-3420, (213)505-2552

그레이스커뮤니티서비스 제2기 무료용접센터 수강생 모집

Grace Community Service는 지난 4월에 이어 제2기 무료용접센터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학기도, 지난 1기와 같이 10주 Intensive Course 9월 16일과 17일부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요일별로 풀러튼 은혜한인교회 파크링에서 진행된다. 10주 코스 수료자는 American Welding Society에서 발행하는 Certification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Gracecommunitysvc@gmail.com으로 Full name과 전화번호, 희망하는 요일을 적어서 보내면 된다. 자리가 넘치면 3기 Wait list로 넘어갈 수 있다.

▲문의: Gracecommunitysvc@gmail.com

기자수첩

미주내 교회들은 청빙광고를 통해 목회자를 찾는다. 광고에는 여러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다. 아무래도 해당교회의 사역환경에 적합한 자를 담임목사 혹은 담당사역자로 청빙을 해야 하기에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청빙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정규신학교를 졸업한자’라는 조건이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항목을 밝힌 것은 그만큼 정규코스를 밟지 않은, 그러니까 인가도 받지 않은 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목회자가 아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곳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들을 청빙하려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옥석가리기를 하는 것이다. 혹자는 그런 말을 할 것이다. 꼭 정규인가를 받은 학교여야 하느냐고...

프로디 사태 그후

지난 2015년 3월 11일 LA 한인타운의 모 대학건물에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급습으로 학교인가가 취소가 되고 학교대표가 구속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 프로디유니버시티 이야기이다. 당시 프로디유니버시티를 비롯한 4개 학교가 불법으로 학교운영을 해온 것이 적발되어 학교대표가 구속되고 학교는 폐교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 폐교로 인해 학생들은 타 학교로 전학을 가야했으며 전학할 학교를 찾지 못한 학생들은 서류미비자가 되거나 귀국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프로디 사태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수업참여가 인정되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이었다. 프로디 사태이후 미국현지에서 거주중인 프로디출신 학생들의 경우 영주권 신청 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해졌다. 이유는 프로디유니버시티에 재학했다는 것이었다. 왜 철지난 프로디 이야기를 하느냐면 최근 모 언론사에 게재된 모 신학교 학생모집광고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해당학교 광고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있었다.

‘본교는 미국신학교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교환이 가능합니다.’ 기자는 미국신학교협의회인 ATS, TRACS, ABHE 등 3개 기관 홈페이지에서 해당학교가 회원학교인지를 조회해보았다. 하지만 그 어떤 기관에도 해당학교가 정회원 혹은 준회원으로 등록돼있지 않았다.

또 미국에서 학교를 운영하기위해 기본적으로 가입돼야 하는 가주교육국(BPPE) 홈페이지에 해당학교를 조회해보았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해당학교 학위프로그램 진행이 학위수여프로그램 작업중지명령(Order Suspending Approval to Operate)이 발효된 것이다. 이렇게 학위수여프로그램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학교인데 버젓이 신입생 모집광고를 낸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까 혼란스러움이 밀려왔다.

인가를 받지 않은 그리고 인가기관에서 인가가 중단된 학교의 학생모집은 단순히 학위와 상관없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규학교처럼 학위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타 학교와 학점교류가 가능하다고하는 것은 결국 프로디유니버시티처럼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아니 프로디보다 더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된다. 프로디는 적어도 BPPE 인가 학교였고 적발이 된 후 폐교를 했으니까.

학교는 입학생들에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겠지만 결국 학생의 미래를 가모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프로디 출신 학생들은 그들의 영주권 심사에서 자신이 프로디를 다녔다는 이유로 영주권 심사에서 탈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자들 역시 영주권을 박탈당했다고 한다. 프로디 사태가 발생한 후 이민법 변호사가 한 말이 떠오른다. “불법신학교 문제는 단순히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수요가 있으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프로디가 사라졌다 해서 불법신학교가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제2, 제3의 프로디는 언제든 나타날 것이다.”

우리주변에는 제때로 인가를 받은 학교들이 많이 있으며 신학교로 진학을 위해서는 검증받은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도록 선배들이 마땅히 조언해야 한다. 이민사회가 가짜학교, 불법신학교의 망령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 것이다.

(박준호 기자)

을 교단 총회 주요 안건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통합을 비롯한 주요 장로교단과 기독교한국침례회가 9월 일제히 교단 정기총회를 연다. 코로나19 여파로 적지 않은 교단이 총대를 여러 교회로 나눠 분산 개최하거나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온라인 총회를 연다. 교단들은 총회에서 다음 현의안을 확정했다. 보통 현의안은 총회 중 논의되지만 코로나19로 회무가 단축되면서 각 부서나 위원회로 보내질 전망이다. 현의안은 지역 노회가 총회에서 다뤄달라고 요청한 안건으로 총대 다수가 찬성하면 입법 절차를 거쳐 제도로 확정된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다.

△다음 달 13일 울산 우정교회와 인근 교회에서 분산 총회를 여는 예정합동 총회(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세계복음주의 연맹(WEA)과의 교류 지속 여부와 총신대 정상화와 관련한 논의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예정합동은 2019년 총회에서 WEA와의 교류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의했지만, 지난해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또다시 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가 이번 회기 세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열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을 정도로 교단 내부의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총신대는 올해 임시이사 체

제를 청산하고 정이사 체제로 재단이사회를 구성했다. 이어 정관개정 등을 진행하며 정상화와 공유교회를 허락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현의안이 눈길을 끈다. 자비량 목회는 목회자가 별도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목회의 방법이다. 공유교회는 한 공간을 여러 교회가 시간대를 달리해 사용하는 걸 말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자비량 목회와 공유교회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인

다. 자비량 목회는 목회자가 별도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목회의 방법이다. 공유교회는 한 공간을 여러 교회가 시간대를 달리해 사용하는 걸 말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자비량 목회와 공유교회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노회가 총회에 내는 총회 상회비를 줄여 달라는 현의안도 많았다. 서울남노회와 전남노회는 각각 '총회 상회비 20% 삭감'과 '총회 상회비 책정 금액 개정'을 현의했다. 노회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달라는 제안이다. 예정합동은 노회 규모에 따라 총회 상회비가 모두 다르게 정해져 있다. 목회자 은퇴자금을 관리하는 총회 연금재단에 대한 불신도 엿볼 수 있다. 여러 노회가

회들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저지를 위한 총회장 명의의 결의 및 성명서 발표'를 요구했다. 서울노회는 '목회자 성범죄 예방을 위해 목사 임직 시 보다 엄격한 관리를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 시비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북·순천·여수노회가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이나 '명확한 총회의 입장' 등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달 14일 총회를 여는

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기 위해 '목회자 부양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예장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은 다음 달 13일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총대의 50%만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연다. 12월 둘째 주를 성서주일로 제정해 달라는 현의안과 사무총장 제도를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바꿀 달라는 현의안이 올라왔다. 특히 총회에서 공인되지 않은 사조직 명칭에 '백석'을 사용하지 말고, 현재 사용 중이면 즉시 변경하도록 해달라는 청원도 있다. 평등법 등 동성애에 옹호적인 법안을 반대하는 교단 성명도 채택해 달라는 안건도 있다.

평등법·코로나 극복위한 재정대안, 핵심현안으로 다룬다

화 절차를 밟고 있다. 임원의 자격을 '예정합동 소속 목사·장로와 여성 지도자'로 수정해 관련 내용을 올해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음 달 28일 경기도 한소망교회(류영모 목사)를 비롯해 고양시의 3개 교회에서 분산 총회를 여는 예정통합 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는 자비량

목회와 공유교회를 허락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현의안이 눈길을 끈다. 자비량 목회는 목회자가 별도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목회의 방법이다. 공유교회는 한 공간을 여러 교회가 시간대를 달리해 사용하는 걸 말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자비량 목회와 공유교회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인

연금재단 220억 부실 투자 손실 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부산 수영구 민락동 투자 관련 재판 신속 진행'을 촉구했다. 또한 '연금재단 외부 특별감사 후 당사자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현의안도 상정됐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총회의 분명한 입장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컸다. 노

예장합신 총회(총회장 박병화 목사)에는 13개의 현의안이 상정됐다. '목회자 빈부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총회 차원의 대책 마련' '총회 임원 선거제도 개선' 안건이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강원노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와 교회를 공교회적인 원리 속에서 제도적으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는 다음 달 16일 온라인으로 총회를 진행한다. 총회에서 평등법 제정 반대 교단 결의와 기후위기에 따른 실천 선언문 채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임원선거에 모바일 전자투표인 '스마트보트'를 처음 도입해 실행한다.

“아프간입국자 도울 때 이슬람문화 고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각계 의견 수렴 실천방안 발표

한국교회가 '미라클 작전'을 통해 한국에 온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한국사회 정착에 나선다. 무리한 선교보다는 인구 99%가 이슬람교인 아프간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2일 “위험한 여정을 거쳐 낯선 한국 땅에 온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와 함께 한국교회의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특별기여자의 입국을 환영하는 동시에 총북 진전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아프간 협력자 진전 대책위원회'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섬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아프간 특별기여자 80여 가정, 390명은 진전의 공무원인재개발원에 머물고 있다. 2주간 격리 후 6주간 머물며 정착 교육을 받는다.

KWMA는 8주 후 이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도록 한국교회와 함께 도움을 줄 계획이다. 지원방법은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 직업훈련과 자녀들의 학교 등 교육현장 연결, 심리치료다.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한국교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취업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간에 남겨 둔 특별기여자들의 가족과 아프간의 어려움을 위해 한국교회와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KWMA는 교단과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진천에서 지역 교회, 교단 관계자들과 만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외교부, 법무부 등을 통해 해외에서 온 이주민에게 중요한 건 물질적 지원보다 정착을 위한 안정된 직장이라

는 사실도 확인했다. 1일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과 통합, 예장백석과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한국침례회 등 교단 사무총장과 논의해 특별기여자들의 취업과 교육에 도움을 주기로 뜻을 모았다. 성명서를 작성하기 직전엔 한국 여성과 결혼해 10여년간 한국에 살고 있는 아프간 국적의 D씨를 초대해 아프간의 정서와 문화, 한국교회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대화를 들었다. D씨는 “99%가 이슬람이지만 실제 코란을 외우며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10%뿐이다. 아프간 사람에게 이슬람은 종교보다 문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교현장에 가면 한국교회는 선교할 때 너무 급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알아서 자라게 해주신다. 특별기여자를 도울 때도 씨만 뿌리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프간협력자 적극 돕되 유럽을 반면교사로”

유해석 교수 등 이슬람 전문가들 조언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을 국내로 이송하면서 환영과 함께 무슬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교계 이슬람 전문가들은 환란당한 이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해야 하지만 부분별한 무슬림의 입국은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해석 총신대 교수는 1일 “정부는 특별기여자들을 돕되 앞으로의 이슬람 난민 정책을 신중하게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슬람은 일반 종교가 아니다. 원리주의자들이 전 세계 인구를 무슬림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군대를 운영하는 조직”이라며 “이슬람 난민 정책에 실패한 유럽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2015년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였던 유럽 국가들에서 수많은 테러가 발생했고, 무슬림끼리 모여 살며 그들만의 '사위 아랍'으로 통치하는 지역들이 생겨났다”고 전했다.

리아들이 많다”면서도 “영국의 경우 1980년대 한두 개에 불과했던 모스크가 현재 1800여개에 달할 정도로 이슬람의 전파 속도는 엄청나다. 난민을 안락잡다는 감정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연구원은 한국교회가 이슬람에 대해 배타적이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슬림 입국 제한이나 모스크 건축 반대 등은 시민사회 단체에 맡기고, 한국교회는 무슬림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혜롭다”며 “한국교회가 무슬림을 반대하고 나서면 기독교가 자

기증심적인 종교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렵지만 가능하다. 국내 이주 노동자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노규석 온누리M센터 목사는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온누리M센터에서만 20명의 무슬림에게 세례를 줬다”면서 “만약 특별기여자들이 한국에 남는다면 대다수가 이슬람 및 탈레반에 실망했을 가능성이 커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입국했던 예멘 난민들이 한국교회가 도와줬던 사례를 기억하고 감사해하며 본국으로 돌아갔다. 무슬림들이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더라도, 기독교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만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GMS ‘드라이브스루 선거’

정기총회 열고 선교사무총장·행정사무총장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 총회세계선교회(GMS)가 지난 2일 경기도 화성 선교본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선교 실무자를 선출했다. 이날 선교사무총장에는 전철영 필리핀 선교사, 행정사무총장에는 강인중 케냐 선교사가 선출됐다. 선교사무총장은 101개국에 파송한 2562명의 선교사 훈련, 위기관리를 담당한다. 행정사무총장은 430억원의 선교후원금 개발과 35억원의 본부행정 예산을 집행한다.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된

선거에서 이사들은 야외에 설치된 투표소로 차량을 이동했다. 이후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를 마친 다음 투표소를 빠져나갔다. 개회예배도 2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GMS 핵심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했다. 소강석 총회장은 “GMS는 국내 최대의 선교단체로 한국교회의 자랑”이라면서 “비록 코로나로 교단의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인내하며 초대교회 신앙으로 사도적 교회를 지향하자”고 당부했다.

이성화 GMS 이사장은 “한국교회는 개혁신앙, 순교사상, 세계선교의 토대 위에 급성장했다”면서 “앞으로도 주님께서 위임하신 지상 최대의 사명을 수행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의 선교기구인 GMS는 14개 지역 선교부와 107개 지부가 있다. 정기총회 보고에 따르면 10대 파송 국가는 한국(이주민 선교) 중국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인도네시아 미얀마 인도 베트남 등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체 선교사의 63.1%(1619명)가 귀국했다. 코로나에 감염된 선교사는 98명, 선교사 자녀는 40명이었다. 현재 12명이 치료 중이며 4명이 사망했다.

유 박사는 원리주의자들이 점령한 곳에서 살 수 없는 온전한 무슬림들은 비슷한 문화권의 인근 국가로 가고,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내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아프간 난민도 같은 종교를 가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지로 간다면 훗날 아프간이 안정됐을 때 나라 재건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아신대 중동연구원 수석연구원 역시 극단적인 이슬람 포비아(공포)에 휩싸이면 안 되지만 대책 없이 무슬림을 받아들이는 것도 위험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은 대체로 온건한 무슬림이고 엘리트이며 어

한미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양국 기독교인들이 손을 맞잡았다. 한미수교 140주년 한국기독교기념사업회'는 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재단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2022년은 한국과 미국이 조미 수호통상조약(한미조약)을 맺은 지 140주년 되는 해다. 사업회는 출범 취지문에서 “우리나라는 한미조약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통상, 민주시민 교육을 받아들였다. 또 이를 계기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서 “이 조약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한·미 관계를 가꾸어나고, 아시아의 복음화와 민주화 그리고 평화의 사명을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통합 백석총회를 비롯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등 7개 교단이 참여했다. 미국에서는 샘 로러 미국목회자네트워크 회장과 류응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목사가 힘을 보탰다. 대표회장을 맡은 이영훈 기하성 총회장은 “한미수교로 인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지금까지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면서 “이 사업회가 한·미 관계 증진과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중직 목회자 89% “일터에서 목회하는 심정으로 일한다”

목회데이터연구소 220명 설문

이중직 목회자의 85.5%는 ‘일터가 사역지’라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으며, 86.4%는 교단이 이중직을 공식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백주년 기념관에서 이중직 목회자 2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과 통합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이번 조사는 수면 아래 있던 이중직 목회자의 실태를 드러냄으로써, 각 교단의 관련 정책 수립을 돕는 데 목적을 뒀다. 조사에 참여한 이중직 목회자들은 활동 영역을 교회에서

일터로 넓히면서 ‘일터도 사역지’(85.5%)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또 ‘이중직 수행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 89.1%가 ‘일터에서 목회하는 심정으로 일한다’고 답했다. 김진양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는 “이중직 목회를 하더라도 일터에서 목회자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고, 목회에

소홀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응답자의 39.5%가 ‘교회 재정과 상관없이 이중직을 계속하고 싶다’고 답한 것을 봐도 알 수 있었다. 이중직 목회자들이 교단에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중직에 대한 신학적·법적 뒷받침이었다. 김 부대표는 “86.4%의 이중직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면서 “이중직이 사회의 다양성에 대응하는 선교 및 목회 수단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발표회에 참석한 박종현 전 도사닷컴 편집장(SNS ‘일하는 목회자들’ 운영)은 현장의 목

으로 자발적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가 늘고 있다”면서 “각 교단이 이중직의 다양한 사례를 연구해 일자리를 소개하고, 교단 신학교도 직업에 관련한 직무 교육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예정합동과 통합 관계자들도 이중직 목회자들이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

중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예정통합은 “이중직 목회자들이 이중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상복 예정합동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은 “향후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3개년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장옥 예정통합 국내외군·특수선교처 총무는 “예정통합은 올해 총회에서 ‘이중직 목회를 공식적으로 허락한다’는 내용을 논의할 예정”라면서 “이제 교회는 이중직 목회, 마을 목회, 특수 목회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자립해야 한다. 찾아오는 교회가 아닌 찾아가는 교회로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86% “이중직 공식 인정해 주길”
39% “교회 재정 상황 상관없이 전도 위해 이중직 계속하고 싶다”

요구하는 정책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이중직에 적합한 직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리를 통해 설문조사 결과를 뒷받침했다. 박 편집장은 “생계 때문이 아니라 선교적 목적

했다. 현재 예정합동은 ‘생계 등의 사유로 소속 노회의 특별한 허락을 받은 자’에 한해 이

했다. 현재 예정합동은 ‘생계 등의 사유로 소속 노회의 특별

했다. 현재 예정합동은 ‘생계 등의 사유로 소속 노회의 특별

했다. 현재 예정합동은 ‘생계 등의 사유로 소속 노회의 특별

선교의 창 (177)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선교 완성을 위한 4P 원리

세계 선교는 주님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종말론적 과업이다. 송고한 이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땅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 길은 험난하고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 영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사가 있어야 한다. 군사는 많을수록 좋다. 훈련될수록 좋다. 무장할수록 좋다. 조직화될수록 좋다. 그렇다면 어떻게 군사들을 훈련하여 전진배치할 것인가?

세상만사 어디에나 질서와 단계가 있다. 그것은 대체로 “시작-가속-전력-매듭”이라는 과정으로 전개된다. 이것을 소설로 말하면 기(起)승(承)전(轉)결(結)이다. 선교도 하나의 패턴이 있다. 개척(Pioneer), 양육(Parent), 협력(Partnership), 참가(Participant)라는 4P원리이다. 이것은 현대선교의 대표격인 랄프 윈터(Ralph D. Winter) 박사에 의해 주장되었다. 그는 성경에 나타난 여러 사역내용을 이와 같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에 우리 한인 세계선교도 무대포적 인 돌진보다는 출구를 생각하며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 개척(Pioneer)단계

이는 선교사에게 가장 힘든 때이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낯선 곳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 이 단계는 건 축물의 기초공사를 하는 때와 같다.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못하면 큰 빌딩을 지을 수 없다. 하지만 기초공사는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기에 겉으로 표시가 안 난다. 이에 성질 급한 사람들은 이 과정을 가

법계 여기저기 건너뛴다. 그들은 통역을 써서라도 속히 가 시적 사역을 나타내기 원한다. 준비도 안 되는데 판을 벌리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격이 된다.

그간 한국선교는 1단계에서 많은 오류를 범해왔다. 사역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속담에 “우물을 깊게 파려면 넓게 파라”는 말이 있다. 따라서 선교사는 시작단계에서 언어습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아가 틈틈이 시간을 내어 현지 나라를 두루 시찰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언어의 수준

만큼 문화이해가 뒤따른다. 언어연수와 문화적응은 사역을 위한 수단인 동시에 또한 그 자체가 사역이다. 선교사는 이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만나야 한다. 이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되 그렇다고 아무나 만나서는 아니 된다. 모든 만남들은 정보적 만남에서 시작되어 인격적 만남으로 발전되고 영적만남으로 승화된다.

2. 양육(Parent)단계

이는 부모가 자녀를 키우듯이 영적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이다. 이 때는 무엇보다 인내를 필요로 한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아기를 낳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아기를 키우는 일은 가장 힘든 것이다”라고 했다. 복음 선포에 의한 영혼구원은 일순간이지만 제자양육은 많은 세월을 필요로 한다. 보통

자기 품속에 안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소심증은 하나님의 징벌을 바라보지 못한 연고이다. 그러므로 양육단계에서 목자는 일만 선생이 할 수 없는 참된 영적부모 역할을 하되 또 한편으로 양들을 일만 선생에게로 내어놓아 다양한 훈련을 받게 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 양(羊)이 아니고 내(주님의) 양”을 치라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3. 협력(Partner)단계

이는 인격적으로 동등한 대우에서부터 시작된다. 설사 부모가 아이를 낳고 키웠다 할 지라도 이제 자녀가 성년이 되면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전환을 해야 한다. 이 때는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의미는 동역이다. 자녀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아이 취급을 하며 수

항상 프로다운 태도로 그들의 허물을 용납하며 격려해야 한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깨달음을 갖게 되고 일취월장(日就月將)한다. 따라서 그들을 바라보는 눈높이를 낮추어야 한다. 매사에 현지 사역자를 세우는 차원에서 코치하면 뒤달이 없다. 그렇지 아니할 때 그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며 여차하면 딴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

4. 참가(Participant)단계

이는 때가 차고 현지인 동역자가 어느 정도 자립 가능성이 있을 때 선교사는 사역을 위임하고 일선에서 빠져주는 것이다. 비록 가슴이 쓰리고 아프지만 “너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는 마음으로 사역권을 현지인에게 내어주고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옥이아 금이아 키운 딸을 출가해 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때

차치하면 서로에게 큰 부담과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한국교회가 위임 문제로 얼마나 많은 시험 가운데 있는가? 헤게모니(hegemony)의 싸움은 사탄의 노림수다. 진정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징벌을 사모하지 않는 한 인간 욕망의 패권적 갈등은 끝이 없을 것이다.

맺는 말

선교사는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나의 킹덤(Kingdom)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현대 선교사가 한 곳에 정착하여 피선교지 사람들을 위하여 금 종신토록 자기를 의존하며 돕는 역할만을 하도록 안배하기 쉽다. 그것은 또 다른 양태의 바벨탑이다. 선교사는 개척자이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곳에 정착하면 안 된다.

사도바울은 끝까지 개척자로서 살았다. 그는 결코 자기 왕국을 세우지 않았으며 한 곳에 안주하지도 않았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씀으로 주의 제자들을 양육하며 그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때가 되면 과감히 위임해 주고 미지의 땅으로 나아갔다. 허드슨 테일러도 이러한 패턴을 따랐다.

오늘 한국선교는 어떠한가? 여기저기 수많은 산봉우리들처럼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선교사가 개척의 정신을 버리고 마르고 닳도록 한 곳에 안주하겠다는 것은 불쌍사나운 모습이다. 선교는 개척의 연속이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 끝까지 가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 방법론은 무엇인가? 바로 4P원리에 따라 사역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한인 세계선교는 더욱 건실하고 멋지며 하나님뿐만 아니라 현지 나라에서도 박수를 받게 될 것이다.

jsong007@hanmail.net

개척(Pioneer) 단계는 전도자로서 언어와 문화 습득하는 때이다.

양육(Parent) 단계는 목자로서 기도와 말씀으로 양을 치는 때이다.

협력(Partnership) 단계는 동역자로서 선교 일을 같이 하는 때이다.

참가(Participant) 단계는 위임자로서 사역을 자문해 주는 때이다.

아이기 태어나 장성하기까지는 25년의 세월이 걸린다. 영적 일꾼을 양성하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까지는 적어도 3년에서 10년 전후의 기간을 잡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제자양성은 결코 한 두 사람에 의해 될 수가 없다. 공수부대 요원을 생각해 보라. 특수요원훈련을 위해서 여러 전문교관들이 관여한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제자양육은 행여 다른 사람이 내 양을 채 갈까 염려하여 잘지 못한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학교도 안보내고

종들게 만하면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다. 어떤 면에서 자라나고 차세대는 부모세대의 한계를 훨씬 초월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로써 영적 제자들도 같은 원리이다. 어느 정도 성장하면 여러 분야에서 의도적으로 같이 상의하고 결정하며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선교사는 가능한 현지인에게 많은 기회를 주며 그들을 통해서 일을 시도함이 바르다. 때로는 현지인 사역자가 미덥지 못하고 실수를 반복한다면 할지라도 선교사는 관성적으로 그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

우 서운하고 가슴이 아프다 할지라도 분가해줌이 그녀의 장래를 보장해주는 것이 된다.

선교사역도 그래야 한다. 비록 정 들고 영원토록 같이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사역을 과감히 위임해야 한다. 최선의 방법은 정든 사역지를 떠나주는 것이다. 같이 있거나 곁에 있을 때는 시어머니처럼 늘 간섭하게 되어 있다. 비록 멀리 타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전의 현지 사역자를 가슴에 품고 늘 중보하며 필요시 멘토 역할을 하는 일이다. 이 참가단계는 이론처럼 그렇게 간단치 않다.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11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선교팀은 구브로 섬 파보(Paphos) 항구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에 있는 버가(Perga)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버가에 머물지 않고 통과합니다. 바울 일행은 서둘러 타우루스(Taurus)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직행합니다. ‘버가(Perga)’라는 도시의 규모와 성격을 생각할 때 바울은 의도적으로 지나쳤다는 것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급히 달려 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과 함께 바울의 선교사역에 중요한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그의 장군 중 한 사람인 셀레우코스 1세 니카토르가 셀레우코스 제국을 세웠습니다. 셀레우코스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 60여개의 도시를 재건하거나 새롭게 세웠습니다. 이 60여개 도시들은 군사적으로 요새화(Fortify)하고 문화적으로 헬라화(Hellenize)했습니다. 이 60여

개 도시 중 16개 도시들 이름을 아버지 안티오코스를 따라 안디옥이라 명명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안디옥은 아주 흔한 도시 이름이었습니다.

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셀레우코스 왕조의 6대 왕인 안티오코스 6세가 바벨론 지역

에 의해 다시 정비되면서 로마 직할 도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은 소아시아지역 첫 로마 직할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직할 도시가 된다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직할 도시 첫 번째 특징은 로마시민과 똑 같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로마의 예비역 군인들이 거주하는 군인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유대인들뿐 아니라 헬라 이방인들도 대거 거주하였던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 선교센터로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을 처음 나타냅니다(행13:48).

현재 터키 알바츠로 불리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서아시아

졌던 곳도 이런 지역들이라고 봅니다.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의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성서 고고학자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았습니다. 독특한 경우도 있습니다. 영국의 성서 고고학자 윌리엄 램지(William Ramsay)는 사도행전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터키지역을 조사하다가 사도행전의 진실성을 믿고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윌리엄 램지는 누가 쓴 사도행전의 역사성을 주장하는 큰 학자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램지 박사는 50년간 서지리의 현장을 누비며 수많은 역사적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로마시대의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발굴

했다. 그가 총독 후 로마 관직(Curator) 취임을 알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비문은 그의 고향과 그의 가족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영향력 있는 지역 유지였음을 밝힙니다.

베를린대학교 성서고고학 교수였던 칼 라스무센(Carl Rasmussen) 박사는 서기오 바울 때문에 바울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성서고고학자인 팬트(Fant), 레드쉬(Reddish) 두 교수는 바울 때문에 믿게 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선교팀에게 자기 고향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러 신학자들은 서기오 바울이 고향 가족들에게 보내는 친서로 선교팀이 전달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다수의 유대인들과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사는 다인종 사회였습니다. 로마 황실의 관심과 배려로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던 비시디아 안디옥은 선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 데베 그리고 루스드라는 바울의 고난을 대표(딤후 3:11)합니다. 아울러 이 지역에 다수 분포했던 유대인들 영향으로 율법주의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런 경향을 지적하고 가르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래저래 비시디아 안디옥은 사도행전과 바울 선교에 중요한 도시입니다.

chap1207@hotmail.com

총독 서기오 바울의 고향으로 선교팀에게 고향방문 요청 추정 다인종 사회, 강한 율법주의로 갈라디아지방 선교센터로 적합

에서 유대인들을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대거 이동시켰습니다. 안티오코스 6세는 유대인들이 셀레우코스 왕조를 믿고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2천 가정을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강제 이주 정책을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BC 25년경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

정착지가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로마황제세배 종교가 성행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런 특징을 고스란히 가졌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하에서 한층 더 발전한 비시디아 안디옥은 사도바울 당시 비시디아 지방의 수도였고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지역에 복음이 퍼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회당에서 바울은 처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시작으로 바울이 1차 선교여행으로 거쳐 간 데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회람 문서였던 갈라디아서가 보내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왜 급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왜 갔을까요? 학자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의 고향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서기오 바울이 구브로, 로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발굴된 비석들에 등장했습니다. 구브로 비문은 그가 총독임을 밝혔고, 로마 비문은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언약, 삶의 근거(창23:1-20)찬267장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대가를 주고 구매해 영구히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결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던 결과입니다. 그렇게 구매한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레아, 그리고 야곱까지 묻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막벨라 굴이 있는

그 지역은 다윗이 남유다의 왕으로 기름부음 받을 헤브론이 됩니다. 무상으로 막벨라 굴을 제공해준다는 제안을 거절하고 비싼 값을 지불하고 구입함으로 그 땅의 소유권을 영구히 획득합니다. 아브라함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화 유산(inheritance)(창24:1-67)찬429장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실한 종에게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해오라 하는데 조건은 '가나안 사람 중에서는 절대로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반이 리브가를 축복한 내용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축복

의 내용입니다. 예상 밖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기억하고 또 지키고 계심을 확증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유산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말씀을 물려줘야 합니다. 자녀들의 거울인 부모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모습을 통하여 유산은 상속됩니다.

수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창25:19-26)찬384장

이삭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둘은 쌍둥이였습니다. 형의 이름은 에서('붉은 자'로 에돔족속의 조상이 됨)이며, 동생의 이름은 야곱('발뒤꿈치를 잡은 자'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됨)입니다. 이 둘은 각각 민족을 이룰 만큼 크게 번성하지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형이 아닌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

유는 모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로도 자격도 조건을 따지지 않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그것이 자격과 공로가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엡1:4-6).

목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창25:27-34)찬433장

에서와 야곱의 상황이 급변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몹시 배가 고프고 상태로 돌아온 에서는 야곱이 만들고 있는 붉은 죽과 자신의 장자 명분을 맞바꿔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

서에 대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였더라(창25:34)"라고 말씀하십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에서의 부모에게도 근심거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방여인들을 아내로 맞아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됩니다. 귀한 복음, 귀한 말씀, 귀한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금 그림에도 불구하고(창26:1-11)찬송 440장

홍년이 들자 이삭은 가나안을 떠나 남쪽의 그랄 땅으로 갑니다. 그랄은 헤브론의 남서쪽에 위치한 블레셋의 영토입니다. 거기서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는 똑같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창26:3)"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삭

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리브가를 빼앗기지 않도록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주었습니다. 이삭의 연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연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임마누엘하시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토 이삭의 우물(창26:12-25)찬267장

이삭은 점점 창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창26:4)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사실 이 우물은 아브라함 때 파던 우물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쫓아냈고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이동해 우물을 파지만 그랄 목자들에게 빼앗기고 브엘세바로 이동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

물을 샅습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우물을 탐내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습니 다. 그는 또다시 다른 우물을 샅습니다. 신기하게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이삭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수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보혈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됩시다.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 (13)

II. 초기 기독교 예배를 통해서 본 예배와 음악

2. 오늘날 교회 예배에 주는 도전들

2)순수한 열정의 찬양이 있는 찬양공동체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 예배음악의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예배찬양관을 정립하며 초기 기독교 교인들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예배찬양에 대해 제시할만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서술하며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윤임상 교수
(월드미선대학교대학원)



먼저, 찬양 가사의 현주소를 점검하여 바른 예배 찬양 가사를 정돈해야 한다. 초기 기독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예배였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결론은 삼위 하나님을 칭송하고 송축하며 영광 돌리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발견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 예배찬양의 가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찬양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고리안 성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유대교, 초대 기독교 교회의 예전과 찬양을 수집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긴 것이기에 그것을 통해 그들이 어떠한 가사와 음악으로 찬양했는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리안 성가는 예배를 위한 기능음악으로 인간의 감정을 배제한 비개성적이고 객관적인 음악이며 신앙심을 고취하는 내면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 고리안 찬트는 하나님을 찬양드림에 있어 좋은 교범이 되는 중요 단서이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많은 부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보다 삼위 중 한 분에 집중이 된 혹은 내가 중심이 되어 내 삶의 윤리, 고백 등이 더 강조되어 가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다). 초기 기독교 예배를 연

오늘날 예배음악은 화려한 예술적 기교와 아름다움에 더 심취되어가고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예술적 기교와 아름다움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현대 예배음악은 화려한 예술적 기교로 인간 관심에 집중 하나님만 향한 열정의 찬양으로 회복돼야

구하는 듀크대학의 레스터 루스(Lester Ruth) 교수는 오늘날 미국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의 가사를 연구하며 다음과 같은 통계를 내놓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언급하는 곡은 모든 다섯 곡 안에서 한 곡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도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직접 언급된 찬양은 열 곡 중 한 곡도 채 안된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전체 곡 중 다섯 곡이 된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직접적으로 언급된 곡은 다섯 곡 중 한 곡에 이르는 연구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게 관심을 가지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교회의 예배와 음악을 쓴 김춘해 교수는 "지금의 교회음악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음악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을 교회에서 연주한다"라고 이야기한다.

이와 같은 통계는 우리 한국교회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미국 찬양들을 주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우리의 현실이 오히려 이 통계에서 나온 결과보다도 더 낮게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음악은 그 예술성, 아름다움 이전에 단순함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지닌 채 하나님을 송축하려는 그 소중한 마음을 원하신다. 오늘날의 급속하게 발전되어가는 음악 예술을 물론 저버릴 수 없다. 그것도 결국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모든 기교와 기술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도구, 수단이지 그 이상 즉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늘날 교회음악 지도자들은 먼저 가사에 깊은 주안점을 두고 음악의 전체 흐름을 점검하여 곡을 선택해야 한다. 한편 새롭게 곡을 쓰는 작곡가들은 본인이 직접 가사를 만들어 음악에 그 가사를 대입시키려는 것보다는 성경의 내용이나, 성경, 신학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작시자들에게 의뢰하여 가사를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곡을 쓰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행위를 점검하여 바른 예배자들이 되어야 한다. 초기 기독교 예배자들은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아 응답송(Responsorial) 형태로 또는 교창송(Antiphonal) 형태로 매 순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찬양을 드렸던 예배자들이었다. 오늘날 현대문명이 주는 이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마음가짐을 흐트러트리며 열정의 찬양을 갖지 못하게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다.

두 번째, 예배찬양의 음악적 기교를 점검하여 바른 음악적 기능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초대교회 예배공동체에서 드렸던 찬양은 다양하지만 단순하였다. 그러나 열정이 넘치는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사건을 찬양했던 아름다운 공동체였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6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그레

하나의 예로 오늘날 예배에서는 성경 찬송이 스크린을 통해 모두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찬양을 드릴 때 찬송가를 들고 찬양하는 것과 찬송가 없이 스크린에 의존해서 찬양하는 것은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다. (15면으로 계속)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간/중 (4)

이하루 목사

하나님은 그렇게 저희 집을 만남의 장소요, 숙소요, 선교현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보통의 윗마을 사역은 안기를 따로 만들어놓고 현지 동역자를 세운 후, 윗마을 분들을 숨겨주며 성경을 가르칩니다. 스파이가 아니라 하는 것이 확인되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본격적으로 성경공부를 시키고 세례(침례)를 줍니다.

그러나 저는 안기를 세우지 않았습니니다. 세울 재정이나 인프라가 없기도 하였지만 일부러 만들지도 않았습니니다. 사선을 넘는 사람들의 낯선 경계와 눈빛이 복음을 듣고 변하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 순간을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사역할 당시는 남북 대립으로 윗마을에서 온 스파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윗마을 특무대원들도 무역상처럼 변장하고 돌아다니며 선교사를 찾아서 납치 또는 해코지 하였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선교사들을 추방하였습니다. 80-90%의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포기하고 철수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희 가족이 추방되지 않고 윗마을 분들을 계속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한인들과 교류를 끊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외로워도 그들을 만나지 않고,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도 하지 않고 중보기도도 아랫마을로 보내지 않았기에 저희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시골 산골에 떨어져 살며, 일상에서 은밀하게 사역을 하였기에 저희는 노출되지 않았고 선교지에서 오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외롭고 슬펐습니다.

윗마을 사람이 없는 날에는 세 자녀들과 압록강 두만강에 나가서 물고기도 잡고 고동도 잡으며 물놀이를 하였습니다. 강 건너의 집과 사람들을 볼 때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네고 싶지만 쉽게 안부를 물을 수 없어서 때때로 가슴이 먹먹해지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발을 물에 담근 셋째 딸에게 "이 물은 강물이 아닌, 우리민족의 눈물이다" 하고 시갈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없이 물이 넘쳐흐른다!" 하고요.

한 번은 강가의 어부가 "이 강 의 물고기는 다 우리 것이요!" 저 조선사람들은 이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없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북중 변경 조약에서 강의 섬은 윗마을 것, 강 속자 원과 물고기는 중국 것으로 조약을 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먹을 것이 없는데, 강 속의 풍부한 어류자원조차도 윗마을 사람들이 배질해서 먹을 수 없다는 것이 한없이 슬펐습니다. 빈 옥수수대만 덩그러니 세워진 산 아래 자락에서 윗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으면서도, 튀어 올라오는 연어도 마음껏 잡아먹을 수 없으니, 강 속의 풍부한 물고기를 볼수록 윗마을의 굶주림이 더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평상시 알고 지내던 윗마을 청년과 같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제 옆에서 한참 혼술을 하더니 불췌 의자에서 일어나 "형님! 고맙워요!" 하고 허리를 굽히는 것입니다.

"뭘가, 고맙지?" 의아해서 물었는데, "그동안 나에게 아무 것도 안 물어주세요!" 하는 것이었



습니다. 자기가 유학중에 한국사람을 보고, 호기심이 들어서 몇 번 만나봤는데, 윗마을의 정치가 어떨까 경제가 어떨까 하면서 자꾸 가르치기에 역겨워서 대신 안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윗마을을 조롱하지도 않고 자신을 평범하게 대해주어서 형님으로 모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동생에게 물어보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마음을 열고 다가온 것입니다. 그 친구와 저희 집에서 식사도 하고 명절에는 애인과 함께 와서 윗마을이 하며 놀았습니다. 형 동생하면서 경계심 내려놓고 이야기하였던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생이 유학을 나와야 한다면서요.

'복음을 나누었으면 어땠을까! 왜 나누지 못했을까!' 지금도 후회가 되는 동생입니다.

윗마을 가정에서 자녀유학은 보통 한 차례씩 교대로 내보냅니다. 가족을 한꺼번에 유학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형 동생 하던 그 친구와 관계가 두절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동생 어디서 잘 지내고 있는가? 민족 사랑하고 애인 고민 많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와 어게동무하며 웃던 그 시절이 그리웁습니다.

되는 현상들이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배와 음악의 한 단면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초기 기독교 교인들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찬양을 보며 재정돈(reset)이라고 강하게 권고하는 것 같다. "오늘날 크리스천 예배자들이여 찬양의 본질적 요소를 갖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존귀케 되는 가사와 음악적인 기교, 그리고 하나님만을 향한 열정의 찬양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iyoon@wmu.edu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39.가정선교는 온전한 부부관계로부터 시작된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의 온전한 부부관계 설정이 가정 선교에 전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고 그 역할만 원만하게 행하여지면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노인의 문제 등 모든 가정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필수요건은 부부라는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모두 달성했다 하더라도 부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조화되

며 (3)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이며 (4)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는 것이며 (5)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결합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는 가장 긴밀한 인간관계입니다. 성경에서는 결혼을 통하여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창2:24, 마19:5-6). 이것이 결혼의 본질이고 또한 부부의 본질입니다. 한 몸이란 육체의 일만이 아니고, 영과 육의 통일체로서의 인간이 하나가 된 것이 곧 부부인 것입니다. 이같이

림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을 통하여 부부가 주 안에서 영육 간에 완전한 몸을 이루므로 명실공히 가정은 우리 모두의 가족들의 쉼을 얻는 가장 소중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중한 가정들이 말세 기적적인 사탄, 마귀의 괴계로 파괴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마귀, 사탄의 가정파괴 공작은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인

끝없는 인내와 노력 쏟을 때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 배우자가 자기개발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어야

지 못한 가정에는 천금이 있어도 행복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사람은 어느 곳에 가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목한 가정이란 하늘에서 우연히 떨어지거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정 만큼 인간의 무수한 수고와 노력을 요구하는 곳은 없습니다. 끝없는 인내와 노력을 쏟을 때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남자와 여자가 장성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배우자를 찾아 결혼을 통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같이 결혼한 부부는 배우자가 충분히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앤 더 슨(Wayne J. Anderson)은 부부관계를 "(1)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혹하게 해야 하며 (2)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해야 하

부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필로서 서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만이 두 사람의 한몸됨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부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영적 사명으로는 두 사람이 한 몸으로 결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회적 사명으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상을 정립하므로 참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개인적 사명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보충하여 주어서 마음과 마음의 교류를 통하여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바른 관계는 서로가 상대를 받아들여 용서하면서 서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가 상대방의 결점을 보완하고 자기희생과 인격적 순종의 정신이 우선되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희생적인 사랑과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른 인격적 복종의 관계가 부부관계를 올바르게 성

간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여 범죄케 하므로 최초로 아담의 가정을 파괴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해산과 수고와 사망의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 같은 말세기적인 사탄, 마귀의 가정파괴 공작을 대비하고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가정선교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선교의 주체는 온전한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온전한 부부의 행동 지침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규범인 성경말씀 안에서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명하신 역할분담을 잘 감당하고 서로 상호 보완하므로 온전한 부부관계를 이룰 때 온전한 가정선교가 정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 714-0691

... 예배와 음악

(14면에서 계속)

찬송가를 손에 직접 들고 찬양할 때에 더 깊이 가사를 묵상하며 열정으로 드리게 될 확률이 높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지닌 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을 담아 최상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기독교교회 예배자들은 찬양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올바른 찬양을 드린 예배공동체였다. 오늘날 우리 예배찬양의 현실을 진단해볼 때 초대교회 찬양공동

체보다도 훨씬 다양한 장르와 음악적 기술을 갖고 화려하고 뜨겁고, 그리고 열정적인 찬양을 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열정이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모습에 더 치우쳐 있는 것 깊이 점검해보아야 한다.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 1933-2007) 교수는 오늘의 예배찬양을 "합리주의(Rationalism), 감정주의(emotionalism), 그리고 오락적(entertainment) 요소의 어느 한 쪽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지적한다. 이 요소들은 결국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려는 강한 본능 속에서 나타나게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라홍채 목사

세미나 안내

1.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2. 70이레
3.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SNS 프리즘 안에서 예수님 드러나게 해야 한다!

TGC, 크리스 베일의 신간서평 통해 SNS가 주는 허상에서 크리스천다움 보여주기 소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답을 알고 있다. 휴대 전화를 들고 BAE(연인이나 절친)에서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고 인스타그램 알림을 살펴보면 밈(Meme, 인터넷에서 시작된 유행어로 커뮤니티 또는 SNS까지 퍼져나간 여러 2차 창작물이나 패러디물)이 하루를 더 좋게 만든다. 눈치 채기도 전에 벌써 한 시간이 지났고 이제 늦었다.

듀크대학교의 사회학교수 크리스 베일(Chris Bail)이 쓴 '소셜 미디어 프리즘 깨기: 사회의 플랫폼을 어떻게 해야 덜 양극화시킬까(Breaking the Social Media Prism: How to Make Our Platforms Less Polarizing)'는 이러한 소셜 미디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바르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름길을 제공해준다. 이 책 종교서적이 아니라 사회과학 책이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또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소비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게다가 저자가 제시한 최종 원칙 중 많은 부분이 기독교 윤리와 실질적으로 일치한다(Can Social Media Foster Persuasion (Not Polarization)).

소셜 미디어는 극단주의를 조장하고 온건한 사람을 침묵시킨다. 좌파나 우파를 가리지 않고 정치적 또는 문화적 극단에서 소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증폭하고 강화하는 한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억누른다.

소셜 미디어는 극단주의를 조장한다

베일은 '극단주의자'와 '온건주의자'를 객관적으로 정의한다. 사회학자는 미국 대중의 정치적, 문화적 관점에 대해 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베일이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에 대해 말할 때, 그가 관찰하는 것은 숫자이다. 그가 극단주의자라고 부르는 이들은 가장 보수적이거나 가장 진보적인 5-10%에 속한다.

베일은 모든 트위터 사용자의 6%가 모든 트윗의 20%를, 그리고 국가 정치에 언급하는 모든 트윗의 70%를 생성하며, 이 6%가 주로 극단적인 사람들라고 말한다. 이걸 그리 놀라운 발견이 아니다. 그러나 그의 책이 깨달음을 주는 중요한 지점은 인터넷에서 시끄럽고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많은 사람들에 관한 연구이다.

첫 번째로, 그의 연구에 따르면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어빙 고프만(Erving Goffman)이 "부패한 정체성"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실제 생활에서 그들은 낙오자인 경우가 흔하다. 극단주의자들은 "종종 오프라인 생활(실제 생활)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많은 경우에 소외를 경험한다.

두 번째로, 그들이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페르소나는 많은 경우에 오프라인 속 성격과는 많이 다르다. 온라인에서 그들은 훨씬 더 공격적이다.

세 번째로, 그들은 일반적으로 (5-10%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극단주의자로 낙인찍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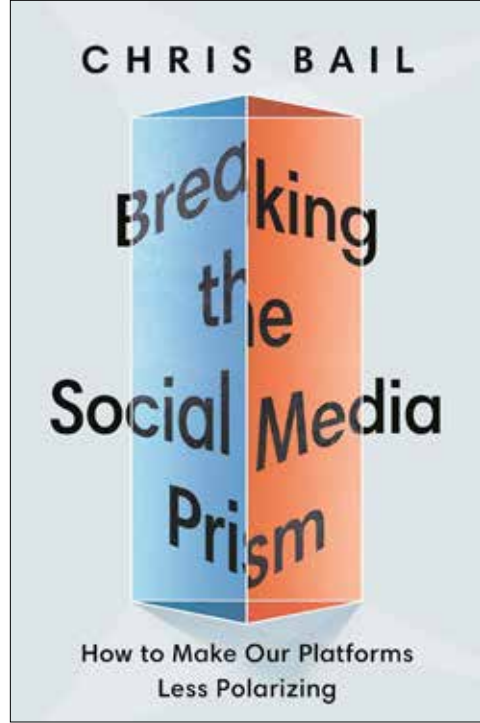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 넓은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 위치한 작은 극단주의자나 주변부로 간주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쾌한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숫자를 과장할 뿐 아니라 다른 극단의 힘과 숫자도 같이 과장한다. 이 방법을 통해서 양 극단이라는 스펙트럼의 이미지를 제거하고, 대신 두 개의 군대가 싸우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중간에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소수의 검쟁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극단주의자들은 자기네 진영에 속한 온건파에 대한 공격을 즐긴다. 온건파를 비원칙적인 타협자나 상대방의 은밀한 구성원으로 공격함으로써 그들은 문화를 양 극단 스펙트럼이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 주류의 선과 악 사이의 다가오는 전투로 묘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권력을 얻을 수

커뮤니티를 가진, 강력한 오프라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다. 극단주의자들은 온라인에서만 지위와 소속감을 얻을 수 있지만 온건주의자들은 굳이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말을 해서 자신의 경력이나 관계를 위태롭게 할지도 모를 행위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극단주의자의 취약한 정체성은 인터넷에서 오히려 많은 부분 은폐되지만, 온건주의자의 정체성은 정반대로 위협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소셜 미디어는 왜곡된 프

트에 의해서 또는 자신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나 전혀 소유하지 않는 사회적 위치나 정체



소셜 미디어는 극단주의 조장하고 온건파는 침묵케 해 담대히 믿음 증거하며 겸손히 비평 듣는 공개담론까지 참여해야

있다고 본다. 이처럼 소셜 미디어는 극단주의자들이 현실과 전혀 다른 자아를 관습적으로 심각하게 왜곡된 사회 이미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베일은 소셜 미디어를 개인과 사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왜곡하는 "프리즘"이라고 부른 것이다.

소셜 미디어는 온건한 사람들을 침묵시킨다

대다수가 가진 정치적, 문화적 견해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온건파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극단주의를 조장하는 것 외에도 소셜 미디어는 이런 온건파를 침묵시킨다. 어떻게 하는 걸까?

첫 번째로, 온건파는 더 큰 성공과 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대면

리زم이기 때문에 온건파는 중간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베일은 오히려 "잘못된 양극화"("자신과 다른 정당의 이념적 차이를 과대평가하는 경향")가 크게 증가했지만 정치적 견해의 분포는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통계적으로 정치적 온건파 또는 "자유주의"와 "보수적" 견해를 혼합한 사람들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세 번째로, 앞에서 살펴보았듯 온건파는 종종 엄청난 비판의 공격을 받는다. 자신이 선택한 정체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현실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극단주의자는 그들을 공격해야 한다. 중도파는 자신의 견해가 '악의적 글 읽기 기술'(가능한 한 최악의 방식으로 글을 해석하는

성을 부여받음으로써 공격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은 정말로 백인 우월주의자 또는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자네요." 또는 "지금 당신의 처지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등등이다.

베일이 제시하는 것은 대안이다. 정체성이 아닌 아이디어가 실제로 토론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잠정적인 아이디어다. 그의 아이디어에는 많은 장점이 있으며 우리는 베일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응원해야 한다. 기본 취지는 다음과 같다.

"좋아요"를 없애고 대신 해당 포스트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도 소구하는(appealing) 가치를 계산하는, 그래서 그 가치가 큰 포스트에는 더 큰 보상

이 따라가는 식의 미터기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 진영의 사람이 해당 포스트에 동의하는 수준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한 플랫폼이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양측이 모두 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믿는 게시물에 대해 보상과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그의 제안 중 일부는 크리스천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오늘날 소셜 미디어의 왜곡에 영향 받지 않으면서 종교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견해를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가능할 거 같다.

베일은 소셜 미디어에서 발견하는 양극화라기보다는 설득을 향한 움직임이라고 믿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1. 길게 그리고 집중해서 들어라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즉각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지 말라. 팔로우하고 잠시 들으라. 다른 사람들의 견해가 가장 잘 구성된 것을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서 가치 있는 것을 찾으려 하라.

2. 그들이 쓰는 단어와 권위를 활용하라

사도행전 17장 23절과 28절을 참조하라. 사도행전 17장에서 스토아학과와 에피쿠로스학파 철학자들에게 연설하는 바울이

결론으로, 크리스천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크리스천들이 보여주는 특별한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은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오셨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요17:1; 요일). 그러나 소셜 미디어라는 매체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특별한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세상과 전혀 다른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크리스천이 지금 처한 처지가 요원하기만 하다.

그래도 일부 크리스천이라도 인터넷에서 그들의 사랑 때문에 유명해질 수는 없을까?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증거 하는 동시에 신중하고 겸손하게 비평가의 말을 듣는 공개 담론이 가능한 새로운 공간까지 재건하는 데에 과연 참여할 수 있을까?

물론 할 수 있다. 그럼 거기에 당신도 포함될까?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9절에 인용하는 사상은 다음 아니라 그들이 따르는 에피메니데스와 아라투스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서 저자 또한 헬라철학용어인 로고스를 사용한다.

3. 비판할 때에도 그들이 가진 세계관에서 동의할 부분은 동의하라

서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하라. "너희 철학자들의 말과 같이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만든 우상의 경배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또한 그가 유대인과 그리스인 모두에게 복음을 어떻게 제시했는지도 살펴보자. 그들의 문화적 목표를 확인하고, 또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을 배방식에 도전하고 그리고 나서야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내면이 가진 가장 깊은 문화적 열망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꿨다.

4. 자기 자신에게 비판적이야 한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말한다. 당신이나 당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나 집단의 모든 주장과 행동을 다 옹호하지 말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5. 사상과 정체성 사이의 고리를 느슨하게 유지하라

디모데후서 2장 24-26절을 참조하라. 당신과 다른 생각이 당신이란 존재에 대한 공격으로 느껴질 정도로 사상을 정체성에 포함시키지 말라. 우리는 지금 소셜 미디어 프리즘으로 정체성을 위조함으로써 "너희는 이 세대를 분별지 말고"(골2:2)라는 성경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

미국 동부의 대표적인 한인교회 목회자가 말하는
코로나19 시대, 예배의 정수(精髓)!

국민일보

그 많던 **예배자**는 어디로 갔을까

저자 김성국 목사 (미국 뉴욕 퀸즈장로교회 담임)

한국 판매처: 국민일보 02-781-9870
미주 판매처: 미주크리스천신문사 (1)718-886-4400 www.hisfingermall.com

Hisfinger
편집 디자인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기독교문화센터 히핑퍼